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어린 사람은
아랫 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소책자

목차

서문

① 어린이·청소년 나이 차별적인 일상 언어 문제들 ————— 9

반말과 하대

○○분

○○ 친구

나이가 같으면 친구?

교사가 학생을 부를 때 ‘애들’?

○○ 양/군

우리 아이

미성년자

사춘기/중2병

등골브레이커

급식(층)

쌤민이

님, ‘초딩’이세요?

미래의 주역, 미래의 희망

대들다, 말대꾸

대견하다, 기특하다

‘애들은 짐승’

물건을 ‘아이’라 부르는 것?

② 어린이·청소년에게 평등한 사회를 위한 칼럼들	45
■ ‘학생님’이라는 호칭은 왜 어색할까	
■ ‘O린이’에 담긴 편견	
■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다	
③ ‘평평이’들의 이야기	59
■ ‘존댓말하는 어른은 처음 봐요’ - 여름, 초등학교 교사	
■ ‘말로만 학생인권 존중을 외치는 것을 넘어’ - 이윤승, 고등학교 교사	
■ ‘학교 선후배 간 나이 차별적인 언어 문화’ - 이종채, 고등학교 학생	
■ 갓난아기에게 “OO 씨”가 어색할 게 뭐 있나 - 공현, 청소년인권활동가	
부록	69
① ‘어린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킵시다’ 포스터 소개	
② 학교 내 나이 차별적 언어 문화 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소개	84
후원자 명단	86



서문

100년 전인 1922-1923년 시작된 어린이날 운동. 1922년 어린이날에 발표된 선언문과 1923년 어린이날에 발표된 <소년운동의 기초 조항>은 모두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 여기에서 재래의 윤리적 압박이란 다름 아니라 ‘어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규범, 장유유서(長幼有序) 등의 나이주의적 차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00년 전의 어린이날에는 나이에 따른 권력관계와 수직적 문화를 없애고 어린이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라는 것을 제1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때 발표된 <어른에게 드리는 글>에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라는 말이 앞부분에 올라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대하지 말 것, 존댓말을 사용할 것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참고로 어린이들에게 당부하는 글 중엔 “어른들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란 내용이 있어서 어린이·청소년 사이의 나이주의적 위계도 없애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도 어린이·청소년이나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하고 하대를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어린이과학동아》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쓰고 부드럽게 대해 주세요”가 가장 잘 안 지켜지는 조항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급식충’, ‘ 쌤민이’와 같이 어린이·청소년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의미를 담은 신조어도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2020년 11월부터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 일상 언어 속 나이 차별 개선 캠페인’을 해 왔습니다. 이 캠페인에서는 ‘어린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킵시다’ 포스터를 배포하며 어린이·청소년 및 나이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 반말 사용 등 하대를 하지 말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나이 차별적인 언어 문화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혐오 표현, 편견이 담긴 말 등을 지적하는 글을 연재했습니다. 본 책자는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을 통해 차별적 언어 문화를 비판한 내용을 보충, 갈무리하고, 활동가들의 칼럼과 캠페인에 동참한 ‘평평이’들의 경험담을 함께 담았습니다. ‘어린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킵시다’ 포스터 해설과 학교 안에서의 나이 차별 문제에 대한 설문

조사를 부록으로 수록했습니다.

이 소책자에서는 여러 어린이·청소년을 하대하고 차별하는 언어 문화와 어린이·청소년에 관련도니 혐오 표현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한 말이나 단어, 표현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린이·청소년을 대하는 방식과 나이주의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곧 다른 새로운 말로 대체될 뿐일 테니까요. 그보다는 오늘날의 언어 문화와 표현들 속에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어떤 차별과 편견이 담겨 있는지를 성찰하고, 이를 계기로 어린이·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나이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히기를 바랍니다.

1922년 어린이날에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라고 요구했던 것이 2022년 오늘날의 문제의식으로 계승, 발전된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표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지도 10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어린이·청소년을 어른과 다른 아랫사람, 반말을 하고 하대를 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 문화가 차별적인 악습임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여러 차별과 폭력이 사라지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5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①

**어린이·청소년
나이 차별적인
일상 언어 문제들**

반말과 하대

나이가 어리거나 어려보인다고 반말을 들은 경험 한번쯤은 있으시죠? “내가 너보다 나이 많으니까 말 편하게 할게.”라고 하며 나이 차이, 지위 차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 쉽게 말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하고,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하는 풍경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만날 수 있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영화 등 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누군가는 반말을 하고 누군가는 존댓말을 해야 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친하고 가까운 사이에서 합의에 따라 서로 반말을 주고받는 것과, 나이가 많은 쪽의 한 사람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같은 상황일까요?

상호 반말이 아닌 일방적 반말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위아래’가 존재한다는 착각을 만들어요. 또 각 위치에 따라 ‘아랫사람’답게, ‘윗사람’답게 행동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인식도 생깁니다. 주로 반말을 듣는 쪽이 ‘아랫사람’으로 하대를 받게 되는 셈이지요. 일방적인 반말이 당연한 사회에서는 하대와 불평등한 대우 또한 당연해지며, 이는 사람 사이의 평등한 관계맺기를 어렵게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예의로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예의를 과연 ‘모든 사람이 함께 지켜야 하는 예의’, ‘모든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며 차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 예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이전의 낡은 것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존중하는 일, 나이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실천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남존여비의 차별 의식이 강할 적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존댓말을 쓰고 남성은 여성에게 반말을 쓰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 성평등이 더 실현되면서 그런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하대와 언어적 상하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로 사람의 위아래를 정하지 않으며, 말을 '높일지 낮출지'를 정하는 데 나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라면, 서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평등한 관계로 만나기 위해 존댓말을 사용해요!

○○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활동가가 어느 언론사 기자와 청소년인권에 관한 인터뷰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 활동가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한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그때 그 학생분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분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애들한테 분이라는 말을 붙여요? 역시 청소년인권활동가라 그런지 다르네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활동가로서는 별 생각 없이 자연스레 나온 말이었는데 그런 반응이 돌아온 게 오히려 놀라웠다고 해요.

‘분’이라는 높임의 뜻을 담은 명사 또는 접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분 들어오세요.”라고 부를 때(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함), 식당에 들어서면 “몇 분이신가요?”라고 물어볼 때(사람 수를 셀 때 ‘명’ 대신 높여서 쓰는 단위), “저기 저분이 ○○○ 선생님입니다.”라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때(‘사람’을 높여서 이르는 대명사로 쓰임) 등…….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존칭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학생이나 청소년, 어린이, 아이 같은 말 뒤에 붙이면 왜 더 어색하게 느껴질까요? 처음 든 에피소드에서도 만약 그 활동가가 “그 교사분이~”, “학부모분들이~”라고 말했다면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다른 경우라면 “그분이”, “그 사람이”라고 말할 법한 순간에도 나이 어린 사람, 특히 어린이·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애(아이)가”, “그 친구가”라는 식으로 나이가 어리단 것을 드러내는 말, 높이지 않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어린이·청소년·학생을 직접 만나서 존댓말을 쓰는 경우에도 이처럼 불완전한 경어를 쓸 때도 적지 않습니다. 말 끝에는 “~요”를 붙이지만 존칭 표현을 덜 붙이고 이름만 부르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높임의 뜻을 담은 말들, ‘분’이나 ‘님’ 같은 표현이 잘 붙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을 보통의 예의를 갖추어 대할 존재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른 나이, 다른 집단에게라면 자연스레 ‘~분’이라는 표현이 쓰일 법한 상황, 심지어 그렇지 않으면 다소 무례하게 들릴 상황인데, 어린이·청

소년들에 대해선 ‘~분’ 등의 높이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면,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한번 반성해 봐야겠지요. 이러한 차별은 어린 사람들이, 존중받으면서 사회에 참여하고 공적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 나이에 따른 위계나 하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점 커지면서,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존칭을 쓰고 “학생분”, “어린이분” 같은 표현을 쓰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존칭을 사용하는 일, 예의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일이 당연하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비청소년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 관해 말하거나 부를 때는 존칭을 붙일 상황이라면, 어린이·청소년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에 관해 말하거나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 존칭을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 친구

친구란 무엇일까요? 무슨 ‘진정한 벗이란, 우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깊은 고찰을 해야 할 것 같은 질문이지만, 나이주의적 문화와 관계 속에서 ‘친구’란 말이 쓰이는 예를 살펴보면 그런 진정성이나 우정 같은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친구’란 말이 남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3자에게 이야기할 때 젊은 사람을 두고 “그 친구는~”이라고 지칭한다든지, 어린이·청소년을 부를 때 이름 뒤에 붙여 “○○○ 친구”라고 한다든지 하는 식이죠. 어린이·청소년으로 구성된 집단을 부를 때도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일이 꽤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친구”의 뜻 중 하나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고 있는데요. 즉, 친분이나 우정과 상관없이 일종의 하대이면서도 친근감을 담아서 하는 말이 “친구”라는 호칭인 겁니다.

그런데 따져 보면 이상합니다. 본래 ‘친구 관계’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서로 친구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나이 위계 속에서 쓰이는 ‘친구’는 일방적이예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더 적은 사람을 ‘친구’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반대로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어색한 일(사실은 무례한 일)로 느껴지죠. 이럴 때의 ‘친구’는 일방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말이 아닐까요?

전혀 친한 관계가 아닌데도, 그리고 친분을 드러낼 필요도 없는 공적 관계나 자리에서도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친구’라는 호칭이 쓰여요. 예전에는 ‘장애우(友)’라는 표현도, 비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을 모두 ‘친구’로 간주하는 듯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죠. 어린이·청소년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사이에 있는 거리감을 조심해서 대하며 조절하고 함부로 친한 척하지 않는 것도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일종의 예의입니다. 한쪽이 친절과 시혜를 베풀어 다가갈 대상으로 여기고,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대 없이도 일방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대상처럼 대하는

것은 존중이나 평등과는 거리가 먼 태도예요. 또한 ‘친구’ 같은 호칭의 뉘앙스는, 어린이·청소년을 공적으로 정중하게 대하기보다는 사적인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나이 어린 사람들, 어린이·청소년을 함부로 ‘친구’라고 부르는 문화를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서로 친밀해서 친구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면, ‘친구’라는 호칭이 나이주의적 위계를 담고 있진 않을까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만 유독 쓰이는 친구란 말 대신,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 보통 쓰곤 하는 말들(그분들, 그들, 이 사람들, ~ 씨, ~님, 이름 뒤에 직책이나 직업 붙이기 등)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친구”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평등한 관계의 의미만 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친구도 아닌데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친구’란 호칭을 쓰지 않을 것을, 어린이·청소년들과도 관계의 거리를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나이가 같으면 친구?

“둘이 나이가 같아? 친구네~”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초면인 사이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두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 태어난 연도가 같아야만 ‘친구’가 될 수 있나요? 둘, 태어난 연도가 같으면 별로 안 친해도 ‘친구’인가요?

나이가 같은 사람들을 친구라고 일컫는 풍조의 다른 한편에는, 나이 차이가 나는 관계, 언니/오빠/형/누나 그리고 동생 관계는 친구라고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전제는 나이가 곧 위아래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평등한 관계인 ‘친구’가 되려면 나이가 같거나 비슷해야만 합니다.

동갑을 친구라고 부르고 그 반대말로 나이 위계를 드러내는 호칭과 관계(언니 등-동생)를 두는 관습 속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 곰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의문은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닌데도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친구로 묶일 때 듭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컨대 같은 학교, 같은 학년(또는 같은 학급)에 편성되어 있으면 전혀 친하지 않아도 “친구끼리 사이 좋게 지내야지”와 같은 요구를 받게 되는 상황 말이죠. 이런 표현 속에는 어린이·청소년들은 같이 지내기만 하면 금세 친해진다든지, 같은 학급이면 마땅히 친하게 지내야 한다든지 하는 고정관념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사이의 관계는 대개 사적인 친분에 의한 관계로 간주하는 인식도 거드는 것 같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린이·청소년도 다 각각의 취향과 성격, 감정과 경험이 있고 친한 관계와 덜 친한 관계, 소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비청소년들에게 한 그룹이나 팀에 속해 있던 이유로 모두 ‘친구’라고 부른다면, 그건 좀 억지스러운 일 또는 개인을 존중하지 않고 사생활에 간섭하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린이·청소년 개인의 인간 관계나 마음을 존중한다면 같은 집단에 속하고 나이가 같단 이유만으로 ‘친구’로 묶거나

부르는 것은 무례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 사람을 “○○ 친구”라고 부르는 현상을 포함하여, 나이와 관련해서 ‘친구’란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린이·청소년들 사이의 관계에 더 쉽게 ‘친구’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절 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친구’란 표현을 쓰냐 안 쓰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언어 관습에 담겨 있는 나이주의적 인식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성찰해야 할 문제 일 거예요.

교사가 학생을 부를 때 ‘애들’?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말은 매우 다양합니다. 게다가 한국어에서는 특히나 상황과 관계에 따라 적절히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이 어렵다고 꼽는 부분 중 하나죠. 그중에서 교사가 학생을 부르는 말로 적절한 호칭은 무엇일까요? 일대일로 부를 때는 아무래도 “○○야”라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여러 명의 학생을 부르거나 혹은 다른 장소에서 대화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리킬 때 교사들은 보통 “애들”, “아이들”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을 ‘애(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어리니까 아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냐’, ‘어리다는 것은 그때만 누릴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할 정체성인데 왜 아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면, 차별적인 호칭이니까 쓰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애(들)’이라는 말은 단지 그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아이라는 의미를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 학생들이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는 위치를 당연하게 여기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차별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 ‘애들’은 ‘어른(들)’과 다른,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니까요. “애들로만”이라는 말과 “학생위원들로만”이라는 말은 꽤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애들’이라는 말은 상대를 권리의 주체, 평등한 구성원보다는 보호받거나 신뢰롭지 못한 존재로 더 쉽게 여기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권위나 권한이 없는 낮은 사람들로 보이게 하는 ‘애들’이라는 말은, 학생을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보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자애들은~”, “3반 남자애들은~”, “개들은” 등의 호칭은 다양한 사람들을 쉽게 몽푹그려 똑같아 보이게 합니다. “요즘 애들” 같은 말에서도 이런 경향을 느낄 수 있지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참여를 경험하고 보장받고, 다양한 개성과 자아실현이 지지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다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나 ‘애들’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말들이 친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건 가족 내에서 쓰이는 호칭이기 때문이

겠죠. 하지만 교사-학생은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 가족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를 가족과 유사하게 여기는 문화는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계 맺기를 실천하는 학교와는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닐까요? 교사가 학생들을 가리켜 ‘애(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적인 교육기관, 공적인 관계와 자리에서 학생들은 동등한 참여자로 존중하는 태도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공적으로 관계맺고 참여를 보장하는 호칭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우선은 학생들을 뭉뚱그려 생각하기보다는 개개인으로 인식하고, ‘애(들)’보다는 ‘학생’, ‘어린이’와 같은 좀 더 공식적이고 존중하는 표현을 쓰도록 노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양/군

SNS에서 흥미로운 글을 하나 접했습니다. 영어로 된 소설을 읽는데, sister(자매)나 brother(형제) 같은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대상자 기준으로 나이가 어린 여동생/남동생인지, 나이가 많은 언니&누나/오빠&형인지 궁금해서 소설 내용에 집중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어에서는 손위/손아래 형제자매의 호칭을 구분하지 않지만 한국어에서는 자연스럽게 구분해서 부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호칭에도 각 언어문화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에 따라 여러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한국어에는 나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호칭이 많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사적인 자리에선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간의 나이를 알지 못하고서는 대화를 편하게 진행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서로를 부를 적절한 호칭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호칭 중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언론매체 같은 데서 주로 쓰이는 표현으로 '양/군'이 있습니다. '양/군'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의 성이나 이름 뒤에 붙이는 호칭인데, 언론매체에서는 청소년 이하의 연령대의 사람들을 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비청소년의 경우엔 '씨'를 붙여 '김모 씨(46)' 하는 식으로 표현하지만 청소년에게는 '박모 양(16)', '최모 군(15)'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씨'라는 호칭에는 특정 정보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양/군'이라는 호칭에는 성별과 나이라는 두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씨'가 비청소년에게 쓰이는 호칭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 사람에게만 성별이분법적이고 연령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호칭이 사용되는 셈입니다.

많은 경우 성별이나 나이를 반영한 단어들은 사람 간의 위계를 구분하기 위해 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분된 위계는 자연스럽게 차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언어와 인식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한국어에 익숙한 사람이 sister나 brother 같은 표현을 보며 누가 더 나이가 많고 적은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사용하는 '양/군'과 같

은 표현에선 해당 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 '성별'은 무엇인지 구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양/군' 호칭은 어린이·청소년을 어른들과는 무언가 다른 존재로 표시해 준다는 점에서 차별적 효과를 가집니다. 게다가 꼭 자신의 성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성별이분법에 불편함을 느끼는 성소수자 등에게는 차별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의 활동가들은 종종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 '양/군' 호칭을 쓰지 말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그런 요청은 거절당했습니다. 주로 내부 편집 지침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였지만, 꼭 편집 지침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언론에서는 오랫동안 써 오다 보니 습관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성별이분법적인 호칭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ze와 같은 성중립 단어를 일부러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어에는 '님/씨'라는 성중립, 나이중립적인 표현이 이미 존재합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언어 문화를 돌아보고 차별적 의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앞으로는 '양/군'과 같은 성별이분법적이고, 나이 차별적인 호칭 대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언어문화를 보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요 언론사들이 먼저 변화에 나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지겨운 레퍼토리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중 하나,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투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 세상을”입니다. 정작 어린이·청소년들은 투표도 할 수 없고, 지지 발언 등 의견 표시도 금지되어 있는데, 그토록 ‘우리 아이들’이 자주 불린다는 건 모순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 “우리 아이를 위해” 뭔가를 하라는 말은 선거 외에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양제를 먹이세요’, ‘이런 책을 읽히세요’ 같은 광고들도 넘쳐나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를 해라’라는 버전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은 ‘아이를 위해서’라는 게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 말임을 반영한 듯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강조하는 것이 어린이·청소년을 존중하고 인권과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아이들을 위해 투표해 달라’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은 많지만, 그러면서 선거권이 없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아이들의 말을 듣고 투표해 달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건 실은 선거권자인 어른이 자기가 생각하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투표에 나서라는 말이지요. 이처럼 ‘우리 아이를 위해’라는 말은 정작 ‘어른’의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차별·혐오를 선동할 때에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우리 아이’를 말하는 주체는 누구인지를 물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때의 ‘우리’는 어른들, 비청소년들이죠. 어린이·청소년들 스스로는 ‘우리 아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주로 ‘우리(의) 아이’이고, 이는 부모-자식이나 교사-학생의 관계 등을 연상시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을 부르는 것은 어린이·청소년을 어른들에게 소유되는 존재로 보는 동시에 주체가 아닌 대상의 자리에 두는 맥락을 갖곤 합니다. 또 다른 예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라는 문구의 피켓이 널리 쓰였는데요. 이때의 ‘우리들’은 어른들이겠지요. 당시 촛불집회 참가자 중 청소년들이 다수를 차지했던 상

황이었는데도 저런 피켓이 등장한 건 어린이·청소년을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는 뿌리 깊은 습관을 보여 줍니다.

무언가 행동을 촉구하며 ‘우리 아이들’을 이유로 드는 것은 비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이나 절실함을 불러일으키나 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어린이·청소년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태도,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를 재생산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에서 비청소년에게 종속된 존재로 인식하게 하기도 합니다.(다른 사회적 소수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 같은 식으로 잘 쓰이지 않지요.)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은 어린이·청소년을 직접 대할 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태도를 보여주는 언어 표현들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며 어린이·청소년을 핑계 삼는 것은 좀 그만하는 게 어떨까요? 그건 어린이·청소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어린이·청소년을 자기 순수함을 어필하는 명분이나 보호 대상으로 단순화해서 보지 않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사회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같은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을 부르는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오래되기도 하고 사회 곳곳에서 공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호칭은 법률상 청소년을 칭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공간과 물건에 ‘미성년자 판매 혹은 출입 금지’하는 경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률상 용어임에도 청소년에게 무언가를 금지하거나 청소년의 접근을 배제할 때 일상적 상황에서도 익숙하게 쓰입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아닌 사람’,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등을 뜻합니다. 단어 자체가 청소년을 혐오하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 지을 때 주로 사용된다는 맥락과 어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기준 자체가 성인에게 맞춰져 있으며, 나중에 성인이 되어야지만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둔다면 ‘미성년자’와 ‘성인’이 아닌 ‘청소년’과 ‘비청소년’으로 불리지 않을까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부를 때 ‘정상’이고 ‘일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일반인’ 보다는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요.

이처럼 사회에서 ‘기준’, ‘중심’이 누군지에 대한 문제로도 살펴볼 수 있고, 미성년자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맥락도 더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한자 뜻을 살펴보면 ‘미성숙한 나이의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미성년자’가 등장할 때면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자주 따라붙습니다. 누군가를 ‘미성년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재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자격을 박탈하는 이유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성년자’라는 개념을 통해 법령과 사회에서는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청소년을 미성숙하다 규정하고 배제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는 법률상의 공식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률상 용어라 해

서 차별을 담고 있지 않은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법률상 용어가 쓰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한층 더 차별적인 의미와 어감이 덧붙여지기도 합니다. 청소년을 부르는 온라인 신조어 중 하나인 ‘미자’는 미성숙한 사람, (어른들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아직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性)에 관한 내용을 담은 행사나 정보에 ‘미자들은 오지 마라’라고 하는 등의 상황에서 많이 쓰이지요.

비슷한 경우로 미등록 이주민을 ‘불법체류자’로 법률상 칭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법률상 용어이지만 일상적으로 ‘미등록 이주민’을 낙인찍고 비하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불법체류자’를 줄여 ‘불체자’라고 부르며 일상의 여러 공간에서 차별하는 것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성년자’를 줄여 ‘미자’라고 부르거나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을 찾아내는 것을 ‘민짜를 걸러낸다’로 표현하는 것은, 소수자들이 일상적 공간에서 감시와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닮아 있습니다.

보다 보편적이고 객관적 기준에서 정해져야 되는 법률상 용어마저 청소년을 차별하고 하대하는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 자체가 청소년을 제한하고 차별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을 미성숙하다며 단정 짓는 표현, 동등한 시민이 아닌 나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는 나이 차별적인 언어 표현들은 제도를 비롯한 여러 공간에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성인 중심의 ‘미성년자’라는 표현 대신 ‘어린이·청소년’이나 ‘아동’ 같은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표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을 미성숙하다고 단정짓고 제한하고 차별하는 제도와 사회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필요하겠습니다.

사춘기/중2병

청소년기, 10대를 설명하는 말 중 아주 유서 깊은 것이 바로 '사춘기'죠. 사춘기 자체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징이 나타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10대 초·중반 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춘기라는 말은 청소년을 폄하하거나 타자화하는 데 자주 쓰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사춘기 중고생들은 충동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 “네가 그런 반항적인 생각을 하는 건 사춘기라서 그래.” 같은 식으로요.

'사춘기'란 말은 의료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떤 경향이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이상의 가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춘기는 불안하다든지 충동적이라든지 반항적이라든지 하는 부정적 이미지들과 쉽게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비이성적인 존재, 어른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되곤 합니다. 청소년의 행동이나 말, 감정을 두고 '사춘기라 저런다', '일시적인 거다'라고 무시하는 일을 많은 분들이 겪어봤을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나 부당한 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때, 상황을 성찰하거나 대화하려 하기보다는 '사춘기인가 봐' 하며 청소년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사춘기와 비슷하게 쓰이는 말들, 비슷한 의미를 담아 변형된 말들은 여럿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 등장한 것 중 하나가 '중2병'입니다. 이 말은 아예 특정한 나이/학년을 '병'으로 부르고 있지요. 중학교 2학년(15살), 10대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의 특징들이 비정상이고 '병'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사춘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어른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거나 사회 주류에서 정해놓은 삶의 방식을 벗어나려 하는 모습에 '중2병'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의 우울증이나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사춘기', '중2병' 때문이라고 경시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사춘기'란 개념에는 보통 호르몬이 어떻다느니, 두뇌 발달이 어떻다느니 하는 의료적·생리적 설명이 따라붙곤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게 자연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은 인상을 주죠. 나이에 따라서 생리적인 경향성이나 특징,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향성이나 특징으로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모두 설명하려고 하거나, 누군가의 행동과 마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성들이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하면 “생리 중이라 그런다”라고 평가하고 그 내용을 무시한다면 매우 무례하고 차별적인 일이겠지요. 게다가 사춘기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는 청소년들이 차별받고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사회 제도 및 문화의 영향에 의한 것이 있다는 연구와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사춘기 같은 개념으로 청소년들을 타자화하고 무시하는 모습은 사라져야겠지요.

‘사춘기’나 ‘증2병’ 같은 말로 청소년을 이상하고 병적인 존재로 판단하는 문화는 우리 사회가 고쳐나가야 할, 청소년 차별적인 모습입니다. 사춘기만이 아니라 그런 개념들이 청소년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식으로 쓰여오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 ‘사춘기’, ‘증2병’ 같은 말로 쉽게 규정하고 그 감정이나 주장 등을 특수하고 병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들이 청소년을 ‘아랫사람’으로 대하고 권리를 유예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어린이·청소년 차별적인 문화 특히 비하와 혐오를 담은 일상 언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등골 브레이커

우리 사회에는 어린이·청소년에 관련된 차별적인 신조어나 멸칭, 비하적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가 활성화된 이후로 그런 표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언어로 표현되고 재생산,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로 ‘등골 브레이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등골 브레이커’는 꽤 예전에 만들어진 신조어이지만 최근에도 자주 쓰이고 있어요. 처음 이 신조어가 등장했을 때는 ‘등골이 휠 정도로 비싼 물건(특히 의류)’이라는 뜻이었어요. 남을 착취하거나 빼앗는 것이나 온갖 고생을 하는 것을 뜻하는 ‘등골을 빼먹다’, ‘등골이 빠지다’ 같은 관용구가 있지요. ‘등골 브레이커’는 이 관용구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특히 자식을 친권자(부모 등)에게 물건을 사달라고 하거나 교육 등에 관련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경우, 친권자를 힘들게 고생시키는 그 상품을 ‘등골 브레이커’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골 브레이커’란 말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청소년 그 자체를 부를 때 쓰이는 것으로 확대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비싼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는’ 청소년의 이미지와 함께요. 실제로 그런 청소년이 얼마나 많은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청소년이 친권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양육 등이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현실 자체가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이니까요. 우리 사회에선 출산, 양육, 교육 등이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에서 더 나아간 것이 ‘등골 브레이커’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 청소년들은 사치를 부리고 유행에 민감하여 불합리한 소비를 한다는 인식입니다. 이런 소비 문화는 ‘요즘 애들’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기도 합니다. 유명 대중 가수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관점이 잘 드러납니다. “떼를 쓰고 애를 써서 얻어냈지, 찢리지? (...) 휘어지는 부모 등골을 봐도 넌 매몰차” 이어지는 가사에서는 ‘등골 브레이커’들에게 충고도 합니다. “철딱서니 없게 굴지 말어 (...) 패딩 안에 거위털을 채우기 전에 니 머릿

속 개념을 채우길 (...) 니가 바로 등골 브레이커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방탄소년단, 〈등골브레이커〉, 2014년). 이 노래에서 청소년들은 유독 ‘개념 없이’ 비싸고 유명한 패딩을 갖고 싶어 하는 존재처럼 묘사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은 친권자를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인식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 양육하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비용과 자원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기보다는 개별 가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 탓에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육비와 교육비 등 많은 부분이 사적 부담으로만 지워지면서, 이 부담이 결국 자식의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를 청소년들의 ‘철없음’과 잘못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부르는 많은 이름들은 실제 당사자들의 삶이나 입장은 무관하게 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여성들을 ‘된장녀’라 부르는 현상과 청소년들을 ‘등골 브레이커’로 부르는 현상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사회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청소년의 상을 그려놓고 그에 맞지 않으면 ‘개념이 없다’, ‘사치를 한다’라는 틀로 얘기되는 셈이니까요. ‘된장녀’, ‘김치녀’라는 혐오표현만큼이나 청소년을 향하는 ‘등골 브레이커’ 같은 말도 문제가 많습니다. 둘 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기생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혐오의 이유로 삼는 것이고요.

청소년과 관련해서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을 쓰거나 청소년을 ‘등골 브레이커’라 부르는 문화에는 어떤 차별적 인식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말이 쓰이는 맥락과 상황은 왜 문제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촉발되는 배경이 되는, 개인에게 너무 크게 지워지는 양육 부담과 교육비 등의 문제를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급식(충)

어린이·청소년, 특히 초·중·고 학생을 부르는 인터넷 신조어 중 ‘급식’ 또는 ‘급식충’이 있어요. 이 표현은 2010년대 초중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청소년들을 ‘급식충’이라고 칭하는 말이 나오면서 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이라는 말이 너무 대놓고 비하하는 어감이다 보니 ‘충’을 떼고 ‘급식’이라고 순화(?)해서 쓰이기도 하지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간주되는 인터넷 말투를 ‘급식체’라고 부르는 등의 활용례도 존재하고요.

인터넷이나 게임 등에서 ‘충’이라는 말을 붙여서 누군가를 ‘벌레’라고 비하하는 문화는 여러 상황, 여러 집단에 대해 널리 쓰입니다. 여성혐오 단어인 ‘맘충’이라든지, 게임에서 특정 캐릭터에 집착하는 사람을 ‘(캐릭터이름)-충’이라고 부른다든지, 농담이나 유머가 잘 통하지 않거나 진지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을 부르는 ‘진지충’이라 한다든지 여러 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 나이에 관련해서 유독 많이 쓰이는 말은 ‘급식충’과 ‘뜰딱충’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나이주의 속에서 어린이·청소년과 노인이 주된 차별,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청소년에 대한 멸칭으로 ‘급식’이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2010년 초반,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이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던 것이 끼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이라고 하면 급식이 바로 연상되게 된 거죠. 또한 ‘(무상)급식’이라는 말로 누군가를 부르는 것에는, 그 사람이 사회에 ‘기생’하여 ‘공짜 밥’을 먹는다는 의미, 자유와 선택권 없이 주는 대로 밥을 먹는다는 의미 등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비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먹어라”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감옥에 가라는 뜻이거나 노숙인이 되라는 비꼬거나 저주하는 의미라는 것을 떠올려 봅시다. 즉, ‘급식(충)’이라는 호칭은 단지 그 사람들이 평일 하루 한 끼를 급식으로 먹는 사람들이라는 가치 중립적 사실 진술이 아니라, 비하의 문맥과 의미를 담은 평가적인 말입니다.(그에 비해, 가령 ‘외식’은 이러한 멸칭의 대상이 되기 어려워요.)

사실 혐오표현에 먹는 것이 연결되는 일은 비교적 흔한 모습인데요. 특정 문화권의 사람을 그 사람이 먹는 특징적인 음식이나 향신료, 식재료의 냄새 등과 연관해서 비하하는 경우도 많고요. ‘급식충’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로, 청소년을 낮춰 부르던 언어의 계보 속에서 좀 더 노골적인 혐오표현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린이·청소년을 비하, 혐오하며 부르는 말들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급식(충)’이 처음은 아니에요. 애들, 초딩, 중딩 등을, ‘급식(충)’이 대신하게 됐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인터넷 등에서 청소년들을 배제하고 욕할 때 “급식이냐?”, “급식은 가라”, “다음 급식충”이라고 하는 등의 사례들을 자주 접할 수 있지요. 다만 ‘급식’이라는 말은 좀 더 조롱하는 느낌이 있고 재미있는 조어라는 이유로, 더 센 느낌을 주는 말이라는 이유로 몇 년 사이에 널리 퍼져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청소년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언어 표현이 널리 쓰이게 되고, 심지어 공식적인 매체 등에서도 웃음의 소재로 사용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청소년들을 ‘급식(충)’이라고 부르는 문화에는 청소년에 대한 어떤 차별적 인식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말이 쓰이는 맥락과 상황은 왜 문제인지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또, ‘급식(충)’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에게 붙는 여러 이름들이 나이주의적, 차별적·혐오적인지 살펴볼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잼민이

2020년 이후, 어린이·청소년을 부르는 온라인상의 신조어로 새롭게 등장한 ‘잼민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터넷 방송의 음성합성소프트웨어(TTS) 중 남자 어린이 목소리의 이름이 ‘재민’인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린이·청소년, 특히 어린이를 가리키는 신조어로 퍼졌고, ‘초딩’, ‘급식’ 등의 자리를 대신해 쓰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어리거나 귀엽거나 유치한 모습을 가리켜 ‘잼민이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악의 없이 쓰이기도 하지요. 어린이들에 대해 미성숙하고 하찮은 존재나 민폐를 끼치는 불편한 존재라는 어감을 담아서 쓰는 경우도 많이 눈에 띕니다.

잼민이의 어원은 남자 어린이 캐릭터의 이름이고, 한눈에 딱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인 말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별 문제의식 없이, 귀여운 유행어라 생각하며 쓰는 사람들도 더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말의 의미에서는 어원만이 아니라 그 말이 쓰이는 방식과 맥락도 중요해요. 잼민이는 ‘초딩’, ‘급식’ 같은 과거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멸칭이 쓰이던 자리를 대신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쓰임새가 충분히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하거나 유치하다거나 ‘무개념’하다는 등의 뉘앙스를 담아서 사용될 때는 더욱 그렇지요. 실제로 2022년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어린이·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를 비유한 표현 가운데 비하의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되는 용어 1위로 “잼민이”(70.2%)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잼민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우선 누군가의 이름을 별도의 존칭 없이 부르는 식이란 점이 눈에 띄지요. 어린이·청소년에게는 바로 “○○이”, “○○아”라고 이름을 부르고 하대해도 된다는 한국 사회의 문화가 반영된 거예요.(‘잼민이’의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받침 있는 사람의 이름 뒤에 붙어)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즉, 어린이·청소년을 잼민이라 부르는 것에는 이미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보는 구도가 깔려 있는 거죠.

또한 한 가상 캐릭터의 이름이 어린이들 전반을 부르는 이름이 되는 것은 전형적인 차별 현상이라 볼 수 있어요. 소수자 집단은 옷, 음식, 외모 특징, 캐릭터 등에서 유래한 별명으로 불리며 비하당하는 일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동아시아인을 한국에서 ‘짱깨’라고 부른다거나 미국 등지에서 ‘칭챙총’이라고 부른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지요. 또, 19세기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멸칭으로 “짐 크로우(Jim Crow)”라는 이름이 사용됐는데요. 이는 짐 크로우라는 희화화된 흑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코미디 쇼에서 유래한 것이었습니다.(그래서 이후 생긴 인종차별/분리법을 ‘짐크로우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수자들에게 우스운 별명을 만들어 부르는 것은 소수자들을 하나의 이미지에 묶고, ‘일반적·정상적 사람’과는 다른 특징을 강조함으로써 차별을 재생산하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특히 가상의 캐릭터 이름을 소수자들에 대한 멸칭, 차별적 언어로 쓰는 것은, 소수자들을 개성과 인격을 가진 현실의 인간이 아니라 가상의 재현된 모습으로 대신하여 인식하도록 하지요. ‘잼민이’가 어린이들을 부르는 이름으로 쓰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잼민이란 말을 어린이들을 비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쓰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한편에선 잼민이란 말이 그냥 동글동글한 어감이고 귀여워 보여서, 재밌어 보여서 쓰던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과연 ‘잼민이’라고 불린 어린이·청소년이 존중받는다고 느낄지, 어린 사람이나 어린이 같은 모습을 가리켜 ‘잼민이’라 하는 게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어 보여서 쓰다는 것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놀리는 것으로, 진지하지 않게 대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요. 어린이·청소년을 그냥 있는 그대로, 혹은 공식적인 표현으로, 존중하는 표현으로 부르는 것이 훨씬 더 말하는 측이나 듣는 측 모두 좋은 뜻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님 ‘초딩’이세요?”

초딩, 중딩, 고딩... 각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부르는 은어입니다. 주로 온라인에서 자주 사용되며 200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일종의 줄임말이자 신조어인데요, 신조어 중에서도 오래되었고 계속 쓰이다보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대학생, 직장인을 대딩, 직딩으로 표현할 정도로 꽤 유명한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딩’이 붙은 줄임말이라 해서 같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직딩(직장인), 대딩(대학생)은 말그대로 직장인인 사람, 대학생인 사람을 일컫는 말로 받아들여지지만 초딩, 중딩의 경우는 그저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는 뜻으로만 쓰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초딩’은 쉽게 비하하거나 무시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초딩’이라는 말을 주로 언제 사용할까요? 초등학생들이 본인을 직접 소개할 때 “저는 ‘초딩’입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주로 ‘초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님, 초딩이세요?”, “너 초딩이지?” 이렇게 물을 때 사용되곤 합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정말 초등학생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겠죠? 상대방이 예의가 없다고 느껴질 때, ‘무개념’하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을 ‘초등학생/중학생 수준’이라고 칭하며 비꼬기 위해 쓰이는 말입니다.

‘초딩’이라는 말은 주로 초등학생들을 배제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할 때는 대놓고 “초딩 사절”이라는 문장을 붙여놓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초등학생들을 만났을 때 “초딩/애들은 가라”라고 하거나 장난처럼 유치한 행동을 한 친구한테 “초딩이냐?”고 놀리듯 말하거나 “PC방에 ‘초딩’들 많아서 너무 싫다” 같은 말을 공공연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어린 사람들이 예의가 없고 개념 없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초딩’은 게임을 못하고 여러모로 실력이 부족해서 같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고 배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초딩’이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초딩'들이 개념 없는 행동을 하고, 예의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우리 사회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초딩'이라고 부르고 무시합니다. 초등학생이 곧 무시하고 낮춰보는 멸칭의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소위 '진상'인 사람들의 언행을 무심코 '어린 사람'이어서 그럴 거라고 짐작하는 것은 결국 어린이 청소년을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또 이러한 고정관념이 강화될수록 '어린 사람'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도 더 서슴없이 쓰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어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실제 나이를 숨기거나 속이기도 합니다. 마치 여성 게이머들이 자신이 여성이라는 걸 드러냈을 때 차별을 겪는 일이 잦아서 성별을 숨기는 것처럼요. 만약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배제당하는 일이 없다면, 나이에 따라 사람을 대우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나이가 무언가를 하고 말고 할 기준이 아니게 된다면, 나이를 숨기고 속이는 일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어린이·청소년을 '초딩', '중딩' 등으로 부르거나, 혹은 '초딩같다'처럼 낮게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 차별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잘못이나 모자란 점은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표현하고, 어린 사람들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미성숙함의 대명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래의 주역, 미래의 희망

〈어린이날 노래〉 가사 중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또 이런 말들도 흔히 들을 수 있죠.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 “청소년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주인공)”. 이런 문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우리 사회에는 워낙 어린이·청소년을 무시하고 하대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희망과 주역이라는 말은 얼핏 보면 긍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말은 어린이·청소년이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 사회가 어린 사람을 위해 좋은 것을 제공해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주역’이라는 말은 곧 어린이·청소년이 ‘미래의 존재’라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기보다는 존재 자체가 ‘미래’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을 당하는 거지요. 이는 어린 시절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라는 인식과도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이런 말을 한번쯤 들어보았을 텐데요. “지금 흘리는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다”, “지금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으면 미래의 ~가 바뀐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내일을 위해 오늘의 고통은 참아야 하며, 부당한 일을 겪거나 괴롭더라도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은 견디기를 강요받곤 합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그전까지는 참고 기다리라는 요구도 받곤 합니다. ‘미래의 희망’이라는 말의 뒷면에는 어린이·청소년에게 현재의 고통을 참으라는 말, 현재의 삶은 덜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왜 어린이·청소년은 오늘을 살기보다 나중에 올 미래를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이를 더 먹어야 주인공이 되어 제대로 살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전까지의 삶은 ‘진짜 삶’이 아닌 걸까요? 사실 이런 현상은 어린이·청소년 시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마치 특정 나이가 되면 어때야 한다는 걸 정해두고 그것이 보편적인 삶의 모습처럼 생각되곤 합니다. 현재의 삶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늘을 살 권리’가 필요합니다. 어린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

이·청소년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미래의 희망’, ‘미래의 주역’이라는 말은 어린이·청소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 어린이·청소년의 현재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이 미래의 희망이기에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 또한 어린이·청소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어린이·청소년이 현재의 모습 자체로 고유하고 존엄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할 때,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 사람도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청소년을 미래의 희망이라고 부르면서 오늘의 삶이나 행복을 경시하는 모습, 나이를 먹은 뒤에 하라며 현재의 권리와 참여를 유예시켜도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이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에서 어린이·청소년을 하대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은, 어린이·청소년이 ‘바로 지금, 현재’ 평등한 인간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이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현재의 주인공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린이·청소년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면 어떨까요?

대들다, 말대꾸

“꼬박꼬박 말대꾸하네.” “어른한테 대들지 마.” 이런 말들,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어디선가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것 같아요. 어른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 특히 교사나 부모가 뭔가를 명령하거나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어린이·청소년이 고분고분 따르지 않고 다른 의견을 덧붙이거나 대립각을 세우면 저런 반응이 돌아오곤 하지요.

이런 ‘말대꾸’나 ‘대들다’라는 표현은 상하관계를 전제하고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에 따른 상하관계에서 많이 쓰이지요. 단어의 뜻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에요. 사전을 보면 ‘말대꾸’는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제 의사를 나타냄. 또는 그 말.”이라는 뜻이고, ‘대들다’는 “요구하거나 반항하느라고 맞서서 달려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 그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말대꾸이고, 요구나 반대 의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이 대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라면 이런 상황일 때 보통 다른 표현을 쓰곤 합니다. “말싸움(언쟁)하다”, “반박하다”, “의견 대립이 있다” 같은 말들을 쓰겠지요. 이런 표현 속에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수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 “말대꾸하지 마라” 같은 표현 속에는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이나 입장을 대등하게 바라보지 않고 무시하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은 어른이 말하는 대로 군말 없이 순종해야 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예의 없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말대꾸”나 “대들다” 같은 말에는, 우리 사회가 어린이·청소년의 생각과 말을 폄하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아랫사람으로 보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린이·청소년도 자기 생각과 의견이 있고, 나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며, 대등한 관계에서 토론이나 언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말대꾸”나 “대들다” 같은 말로 어린이·청소년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모습도 사라질 것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이 좀 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거나,

자기 의견을 좀 꺾고 설득되어 주기를 바란다면, “말대꾸하지 마라.”라고 하기보다는 “차근 차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 말이 맞지 않나요?”와 같이 이야기 하면 되겠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변 사람들이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대견하다, 기특하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유독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참 대견하다”, “기특하네” 같은 말들이에요. 분명 긍정적 평가가 담긴 칭찬의 말인데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개운하지가 않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청소년들은 그런 말을 듣는 게 불쾌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 곰곰 생각해보았는데, 우선 대견하다는 말이 ‘어른이 어린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라는 것부터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대 청소년이 40~50대의 비청소년에게 “연세도 많으신데 이런 생각을 하시다니 대견하시네요.”라거나 “참 기특하네요.” 같은 말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어떤가요? 그 이유를 불문하고 무례하다거나 버릇없다는 반응이 돌아오기 쉬울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다소 당황하긴 하겠죠. 청소년들에겐 평소 그런 말을 잘 써왔던 사람이라도 말이에요. 어린이·청소년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말할 땐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거나 “놀랍다” 정도의 말을 하는 게 고작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나이 어린 청소년이 나이 많은 사람을 평가하듯 말했단 것만으로도 불쾌하다고 하는 사람도 아마 없진 않을 거 같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대견하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나 그 언행이) 보기에 흠족하고 자랑스럽다.”로 뜻풀이가 등재되어 있고, “기특하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그 생각, 언행 따위가) 뛰어나고 특별하여 귀염성이 있다.”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고려대한국어대사전) 예문도 대부분 아이, 후배, 학생들 등 나이가 더 어린 사람들에게 대해 쓰는 말로 나와 있네요. 즉,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나이 어린 사람 또는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서 쓰는 것입니다.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평가하며 만족스럽다거나 귀엽다거나 놀랍다는 맥락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청소년 입장에서선 별로 대등한 존재로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만하지요.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대견하다”, “기특하다” 같은 말이 쓰이는 상황은 어린이·청소년

이 사려 깊은 모습을 보이거나 선행을 할 때가 대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린이·청소년들은 미성숙하고, 생각이 짧고, 보호받거나 도움받는 위치에 있는 게 보통인데 그걸 벗어나는 것이 특별하고 특출나게 뛰어난 것이라는 어감을 읽어 낼 수도 있습니다. 즉, 그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어린이·청소년은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고정관념을 담고 있는 거지요. 특히 정치적 문제나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활동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활동을 자연스럽지 않은 것, 특이하고 예외적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도 차별적입니다.

“대견하다”, “기특하다” 같은 말이 왜 나이 차별적일 수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좋게 생각해서 한 말인데 이게 왜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의도가 어땠는지와 상관없이, 그 말이 상대방이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말은 아닌지, 그 말 속에 이미 담겨 있는 사회적 관계와 맥락과 고정관념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대견/기특하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평가하여 칭찬하거나 질책할 수 있다는 습관적인 태도가 반영되어 있진 않았을까요? 상대방을 아랫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과연 자신이 그런 말을 썼을지 곱씹어보면 어떨까요?

짐승, 동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활동가 중 한 명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동 수업 이후에 자신의 책상에 성희롱 문구가 적힌 걸 발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교사에게 알렸더니 “남자 아이들은 아직 짐승이라 그렇다”라며, 여자아이들이 이해하라고 했다더라고요. 그 활동가는 그런 말을 듣게 될 때면, 왜 성폭력을 괜한 짐승들에게 떠넘기느냐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남자는 짐승’ 같은 말이 간혹 나오긴 하지만, 어린이·청소년들 역시 ‘짐승’이나 ‘동물’에 빗대어질 때가 많아요. 여성 어린이·청소년들이라고 ‘짐승’ 혹은 ‘동물’ 취급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성별과 무관하게) 어린이·청소년은 이성과 사회성을 아직 갖추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존재로 여겨져요. 이럴 때 “아직 인간이 될 못했다” 같은 식으로 말하곤 하죠. 이런 인식은 어린이·청소년의 미성숙함을 관대하게 대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어린이·청소년을 말이 안 통하는 존재로 간주하고 나이가 들면 저절로 바뀔 거라는 나이주의적인 편견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애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어른과 달리 강제로 통제해야 한다”라며 폭력과 억압을 옹호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반대로 어린이·청소년을 ‘우리 강아지~’와 같이 부르며 귀여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린이·청소년들을 인간 외의 작은 동물에 빗대는 것은 이들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이자 약하고 귀여운 존재로만 취급하기 때문 아닐까요? 다른 한편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작은 몸이나 행동을 보며 아이 같다 하고, 가족 중의 ‘아이’ 포지션에 둔 호칭을 사용하는 일이 잦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이 사회의 기준에 못 미칠 때 ‘인간이 될 된 짐승(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이중의 차별과 편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린이·청소년은 비청소년들과는 동등하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로 타자화하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비인간 동물은 인간에 비해 열등하고 덜 발달된 존재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 아래에서는, 어린이·청소년도 동물도 작고 무해하고 귀여울 때는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 되고, 위협적이

거나 틀을 벗어날 때는 공포와 혐오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요.

어린이·청소년을 ‘인간이 덜 된 존재’라 하고 짐승(비인간 동물)의 위치에 놓는 관점은, 오랜 시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정당화해왔어요. 좋은 감정이 담겨 있든 나쁜 감정이 담겨 있든 어린이·청소년을 동물에 빗대는 것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쉽게 별 주거나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내려다보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기의 특성도, 동물로서의 특성도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 모두에게 존재하는 삶의 토대이자 기초적 요소잖아요. 이를 성인-인간과 구별하고 더 못나고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이 바로 차별의 논리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물건을 ‘아이’라 부르는 것?

유튜버가 자신이 소장한 물건을 소개할 때, “이 아이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일상적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물건을 “아이”, “애”라고 부르는 말이 흔히 사용되더라고요. 옷을 판매하는 곳에서도 신상 옷을 가져올 때 “예쁜 아이 데려오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물건을 부르는 이름이 ‘아이’일까요? 물건을 아이라고 칭하는 관습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질문해 보았으면 해요.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이들에게 혐오나 무시가 담긴 호칭은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 사람을 칭하는 호칭으로 물건을 칭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어린이·청소년에게 직접 향하는 말이 아니고, 비교해볼 사례도 별로 없어서, 많은 이들이 물건을 ‘아이’라고 부르는 것이 차별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물건을 ‘아이’라고 쓰는 경우에 어린이를 떠올리기보다는 자신의 물건을 흔히 더 귀엽게 나타내거나 더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듯해요. “내 물건 내가 더 아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아이’라는 호칭은 쉽게 물건을 부르는 이름이 되었는지 질문해 보았으면 해요. 어린이를 소유할 수 있는 존재, 귀엽게만 취급되는 존재로 여기는 생각이 있어서 물건을 ‘아이’라 부르게 되는 것 아닐까요? 사실 이런 표현을 어린이가 들을 때면 ‘아이’가 본인을 칭하는 말인지, 어떤 물건을 칭하는 말인지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물건을 ‘아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이 누군가의 ‘부속품’이나 ‘소유물’, ‘물건’ 취급받지 않는 세상을 바라며 물건을 ‘아이’ 말고 본래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그냥 “그것”, “이것” 등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단지 물건을 ‘아이’라고 부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어린이·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할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여러 언어 습관 속에 어린이·청소년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인식이 들어 있지 않나 성찰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②

**어린이·청소년에게
평등한 사회를 위한
칼럼들**

‘학생님’이라는 호칭은 왜 어색할까

나이 차별적인 언어 문화에 맞서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많은 이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물론, 길거리에서 나이가 상대보다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반말을 들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초면이거나 공식석상에선 경어 등을 사용해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이가 어린 사람은 반말을 듣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습이 더 자주 나타난다. 사적인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나이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예의’는 갖춰지지 않은 한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적 공간인 학교에서도, 나이가 적단 이유로 반말 등 하대를 당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교사와 학생 또는 상급생과 하급생 사이에서 나이가 적은 쪽은 존댓말을 쓰고 나이가 많은 쪽은 반말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 위계가 생기는 언어 표현을 우리는 왜 당연하게 받아들일까?

‘학생님’이라는 호칭은 왜 어색할까

몇 년 전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육청으로부터 각 학교로 학생에게 반말을 사용하지 말고 경어를 사용하라는 공문이 온 적이 있다. 어느 교사는 교실에 와서 화가 난다는 듯이 이젠 교육청에서 별 공문을 다 보낸다며 구시렁거렸다. 그는 “이제는 학생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그러네. 아주 ‘학생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어?”라며 비아냥거렸다. 그 공문은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체벌 등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나오게 된 것이었다.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학생에게 반말을 쓰지 말라는 공문에 반발하던 그 교사는 학생을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만큼 학생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언어 문화와 학생에게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가하는 문화는 연결되어 있다.

사실 교사와 학생은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만난 상호 존중해야 할 공적인 관계이다. 사람에게 따라선 개인적으로 친해질 수도 있겠지만, 수업과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하고 있으며 공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예의'는 한 쪽에게만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반말을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수용하며, 교사가 학생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도 관대하다. 학생은 교무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용의복장까지 다 가지런히 하라고 요구받을 정도로 과하게 예의를 요구받는다. 일상적 호칭의 측면에서도 교사는 '선생님'이라 불러야만 하지만, '학생님'이란 호칭은 매우 어색하다. 왜 교사는 학생에게 비슷한 정도로 예의를 차리지 않아도 괜찮을까.

이는 우리가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나이나 신분에 따른 상하관계를 전제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한 쪽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예의와 나이 차별적 언어 문화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아랫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요소이며 차별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

2003년, MBC의 '느낌표'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수업 시간에 존댓말을 사용하는 교사를 소개하며 선물을 주는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당시 많은 논란과 반발에 부딪혔다. '교사 죽이기'라는 표현을 써 가며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꼭 존댓말을 써야만 학생을 존중하는 것이고, 학생에게 반말을 하면 무조건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냐는 반발이 많았다.

하지만 만일 학교장이나 장학사가 교사에게 반말을 하면서 교사를 무시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말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학생이 교사에게 반말을 하면서 그래도 선생님을 존중한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되묻고 싶다. 교사는 학생에게 반말을 쓸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반면, 학생은 교사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 애초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을 존중하려 노력한다는 교사도 별 생각 없이 학생에게 반말을 쓸 수도 있다.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 여부가 교사 개인의 자질이나 태도를 평가하는 절대적 잣대가 되긴 어렵다. 그럼에도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일방적으로 반말 등 하대를 해도 된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분명 어린이·청소년을 평등하게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위치시키는 차별적인 것이다. 즉, 교사 개개인이 문제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반말을

해도 되는 차별적인 문화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차별적 언어 문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꾸기 위한 실천 중 하나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평등한 언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어린이·청소년에게 하대하는 문화를 비판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고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는 반말을 쓰는 것이 한국의 문화이지 않냐는 반문이 돌아오곤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언어 문화가 아니다.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사회 질서를, 나이주의를 드러내고 재생산하는 요소이다.

예컨대 일방적으로 반말을 듣는 것은 과거 한국 여성들에게도 해당되었던 문제였다.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는 모습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친인척들의 호칭을 보면 남편 측과 아내 측 가족에게 붙여진 호칭 사이에 위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남존여비의 인식이 열어지고 성평등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러한 문화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 외국 영화를 번역할 때도 여성만 존댓말을 쓰도록 옮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사라지는 추세이다. 여성을 아랫사람으로 바라보는 언어 문화를 바꾸는 과정을 겪었듯, 어린이·청소년을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언어 문화도 개선해야 한다.

청소년과 비청소년이 맞장토론이 가능한 사회를 바라며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이 낮춰지고 청소년 참여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시민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으로나 정부 기구를 통해서나 청소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공적으로 발언할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평등한 시민으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화도 필요하다. 형식적으로는 같이 참석하고 있더라도, 청소년을 은연중에 아랫사람으로 보며 존중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참여는 위축되고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

2020년 12월, ‘인권교육센터 들’이 발표한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연구 보고서에도 “청소년을 가르칠 대상으로,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시민 대 시민으로 만나는 제대로 된 토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평등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관계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학생을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교육’을 청소년 시민의 주체 형성에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으로 청소년을 평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일방이 차별받고 하대당하는 관계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말하기 위해서, 그 목소리가 같은 크기로 들리기 위해서 어린이·청소년이 존중받는 일상의 언어 문화가 필요하다. 어린이·청소년이 사회에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향한 나이 차별적 언어 문화에도 맞서야 한다. 그 출발점으로, 학교는 물론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청소년에게 하대하는 문화를 없애고 나이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언어 문화를 확립할 것을 제안한다.

주린이, 등린이, 헬린이?...‘○린이’에 담긴 편견

미숙하거나 서툰 것을 어린이에 빗대는 말 이제 그만 쓰기를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최근 들어 주린이, 등린이, 헬린이 등 ‘○린이’라는 표현을 여러 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린이’라는 말은 ‘어린이’에서 뒷부분을 따와, 어떤 일이나 분야에서 초보자나 막 시작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린이’라는 말은 이전에도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사용되어 온 말이지만, 2020년부터 각종 언론사에서 서슴없이 사용하며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언론사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시민청이 어린이날 이벤트에서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문제 제기 받은 뒤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이라는 제목의 책이 올라 있다.

○린이, 누군가의 호칭을 빌려오는 순간에 대해

‘다들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린이’가 주로 사용되는 맥락을 살펴보면 어린이에 대한 편견을 읽어낼 수 있다. ‘○린이’라는 표현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나 취미의 첫 글자와 ‘어린이’가 합쳐진 것이다. 왜 새롭게 시작하는 무언가를 지칭하는 용어인 ‘입문자’나 ‘초보자’를 대신해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먼저 질문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기보다 모든 영역에서 ‘초보자’라 생각하기에 이런 호칭이 문제없이 사용되는 것 아닐까. 어린이는 곧 미성숙하고 서툰 존재라는 편견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린이’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알려주는 상황에서 흔하게 쓰이곤 한다.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알려주는 사람은 ‘어른’으로,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사람은 ‘어린이’로 상정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가르침에 고분고분 따라야 하는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어린이를 낮춰 보는 인식이 녹아 있다.

이런 점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공공기관, 언론에서 어린이에 대한 편견을 재생산하는 용

어를 사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를 함부로 단정 짓는 태도, 어린이 차별적인 우리 사회의 문화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가 나를 호칭하는 이름이 되기 싫을 때

‘○린이’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쓰이는 것을 목격하며, 어린이라는 호칭이 지금까지 어떻게 쓰여 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 사회에서 어린 존재를 지칭하는 말들은 그다지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다. 나는 생일이 일러 학교를 한 해 빨리 들어간, 흔히 말하는 “빠른년생”이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주변 친구들로부터 본인을 언니라고 부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래서인지 나도 늘 ‘언니’가 되고 싶었다. 나이가 한 살 적은 것뿐이었지만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무시해도 되는 위치에 놓이곤 해서,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위축되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다.

나는 특히 나를 어리다고 지칭하는 말들이 싫었다. ‘어린이’라는 호칭은 언제든 벗어나고 싶은, 들을 때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게끔 하는 말이었다. 스스로 어린이임을 드러내기 보다는 부정해야 되는 순간이 대부분이었다. ‘어린이’라고 불릴 때는 내가 배제되거나 무시당할 때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정체성에 붙여지는 이름을 부정하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의 삶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린이’라는 표현은 ‘결정 장애’와 같은 표현과도 닮아 있다. ‘결정 장애’라는 표현도 우유부단한 태도를 장애에 빗대어 사용하는 점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담긴 말이다. ‘○린이’, ‘결정 장애’와 같은 표현을 특정 상황에 쓰는 것은 존재에 대한 편견임과 동시에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을 극복해야 되는 무언가로 여기게끔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부정해야 하는 순간에 놓이고 사회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현실을 드러낸다.

어린이 해방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 어린이임을 부정하다가도 어린이임을 강조하게 되는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었다. 그것도 그냥 어린이가 아닌, ‘착하고 귀엽고 말 잘 듣는 어린이’로 자신을 드러내야 했다. 다른 어린이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다. 나도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선물을 받아내기 위해 어른들이 원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보여주려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평소 내가 싫어했던 모습들을 마구 보여주며 선물을 받아내기 위해 애를 썼다. 어쩌면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본연의 모습보다는 어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날, 어린이의 부자유함과 우리 사회의 어린이 혐오를 목격하기 쉬운 날인지도 모른다.

현재 어린이날은 어린이들과 놀아주거나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날 정도로 여겨진다. 하지만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취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1922년 첫 어린이날에는 “어린이에게 경어를 써 달라”고 하며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할 것을 요구했던 역사가 있다. ‘어린이’라는 호칭 자체에도 너무도 하찮아서 지칭하는 말조차 없었던 나이 어린 존재에게 이름을 붙인 어린이해방운동의 정신을 담고 있다. 어른과 동등한 존재이자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서 ‘어린이’라는 호칭을 요구했지만 현재는 이러한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호칭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부족함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길 바라며

‘○린이’ 표현 속에 있는 어린이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면, “어린이는 아직 부족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맞고, 어른들이 자신을 그렇게 지칭하는 게 왜 문제냐”라는 말이 돌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린이’라는 표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어른들의 권력을 드러낸다.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배워야만 하는 존재,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온전한 삶을 지우는 일이다. 언제나 배워야만 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어린이·청소년들은 ‘○린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많은 어린이·청소년들이 나처럼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불리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할 것이다. 취미로 무엇을 배울지 고민하며 배움을 정할 수 있는 이들, 그렇게 삶이 지워지지 않는 이들에게 ‘○린이’라는 표현이 쉽고 재미있는 것이다.

한편, ‘○린이’라는 표현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어린이 중에도 똑똑한 어린이도 있고 부족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린이도 부족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반박하고 싶지는 않다. TV 프로그램 속에 나오는 흔히 ‘영재’로 여기지는 어린이를 예시로 들며 어른보다 뛰어난 순간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이 세상과 뛰어난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어른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는 어른스러운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를 다시 나누는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린이’ 속에 담긴 어린이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는 것은 어른들의 시선에 들어맞는 어린이만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나 누군가가 부족하다고 전제하더라도 그들의 언행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는 것을 바란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바

랐던 것은 “빠른년생이면 친구지.”라는 말이 아니라, 나이가 달라도 그 속에서 위축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린이 말고 초보자라는 말을 쓰세요.”라는 말보다 “부족하면 늘 배워야만 해?”, “자격과 조건이 미달하면 차별받아야 돼?”라고 되묻고 싶다. ‘○린이’라는 표현으로 어린이의 삶을 납작하게 만들지 말자.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다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는 비겁한 사회

진냥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청소년들에게는 늘 따라붙는 말이 있다. ‘미래세대’. 교육 영역에서 꾸준히 사용되었고 사회 곳곳에서 쓰였던 말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특히 더 많이 들린다. 유사어로는 ‘꿈나무’, ‘미래의 주역’ 등이 있고, 가끔 그냥 ‘미래’라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부르기도 한다. 이런 말, 이런 생각 괜찮은 걸까?

현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착각

이 ‘미래세대’라는 말은 몇 가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현재보다 미래가 더 가치 있다는 착각이다. 세월호 사건이나 구의역 사고를 언급할 때도 그런 인식이 많이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죽음은 나이에 관계없이 비극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의 결과였는데도 문제적인 현실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청소년 피해자들의 ‘창창한 앞날’과 ‘펼치지 못한 꿈’을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죽음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청소년의 현재는 미래보다 중요하지 않게 취급된다. 미래의 성공을 위한 현재의 고통이나 인권 침해는 가볍게 취급되고 가끔은 진짜 현실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세계적인 영화감독 팀 버튼은 어린 시절 내내 집단 따돌림을 겪었다. 교사들에게 차별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 고통에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갖기보다는, ‘어린 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지 않겠냐’는 식의 반응이 흔하다. 미래에 도움이 되었다면 고통을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고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현재는 지나가는 것, 진짜가 아닌 것으로, 미래를 위한 재료 정도로 치부된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킨다.

청소년을 배제시키는 강력한 메시지

‘미래세대’라는 말은 청소년을 현재 사회에서 삭제시키는 말이기도 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인력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관련이 적어 보이는 착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 역시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에 온갖 사회 문제는 청소년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다. 경제 상황 악화는 청소년의 주거 환경 등 생활 조건을 악화시키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추가 노동에 나서게 한다. ‘학생 노동자’ 또는 ‘도제 학생’, ‘실습생’, ‘아르바이트’ 등의 이름으로 노동 현장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매해 수만 명 이상이기에 청소년 역시 중대재해나 산업재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기후위거나 감염병 상황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청소년은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에서 당사자다.

하지만 ‘미래세대’라는 말은 청소년이 현 시대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그들이 가진 주권을 박탈하는 논리에 기여한다. ‘어른 되면 해라’라는 말은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을 가로막고 당사자로서 정보의 접근과 결정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게 한다. 대신 청소년의 모든 활동은 ‘진로’라는 말로 포장된다. ‘네 순서가 아니니 나서지 말라’라는 메시지는 사회 전반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는 주로 ‘후발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산을 향해 간다고 할 때, 서울에서 출발한 자동차도 대전에서 출발한 자동차도 같은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두 자동차가 바로 옆에서 달리고 있다면 아마 서울에서 출발한 자동차가 더 일찍 출발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자동차는 같은 도로에서 달린다. 즉 선발과 후발은 한 측이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최근 몇몇 번역서에서도 ‘후발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성세대가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는 방법

‘미래세대’라는 말은 설혹 청소년들이 현 시대의 구성원임을 인정하더라도, 청소년들이 현재 문제에 개입할 권한을 가지는 것보다 미래의 사회를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게 한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현재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면 누가 뒀든 간에 모든 사람의 힘을 모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왜 미래까지 여지를 남겨두고 심지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미래를 꿈꾸는 건 책임 회피다. ‘잘 교육받아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청소년들을 미래라는 틀 안에 격리시켜 둔 채,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는 일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를 비롯해 대부분의 문제에서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교육을 이야기하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잘 교육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방안이라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의 커다란 오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교육이 사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다 또는 해결했다는 구체적 근거는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가치 지향에 가깝다.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우리는 이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가겠다는 공공의 의지 말이다.

둘째, 교육을 중요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꼽는 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지금은 문제 해결에 치열하게 임하지 않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기에, 교육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교육을 해결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현재의 사회에서 문제 해결을 포기한다는, 그래서 '미래세대'에게 맡기겠다는 책임 회피의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변화시키기 쉽다는 기대 혹은 오만함을 전제하는 생각이다. 나이가 적어서 혹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득하거나 따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대방에게 자신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연약할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된다. 상대적으로 교육 활동을 기획하는 입장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훌륭하고 굳건하다는 믿음과 함께, 이 정도의 오만함은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기 위해

'미래세대'라는 말이 가지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누군가,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을 미래에 대한 준비로 남겨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가지는 해악이 그것이다. 이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돈이나 자원 혹은 에너지를 미래를 생각해 아껴 두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은 자원이 아니다. 적금을 넣듯이 미래세대를 교육해 미래를 대비한다는 발상은 사람을 자원처럼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일까.

가야트리 스피박은 교육을 '비강제적인 욕망의 재배치'라고 말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며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러한 욕망으로 인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는 이 세상에 태어나 호흡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치르는 중이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사람들의 그 욕망을 비강제적으로,

잘 정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려는 욕망보다, 현재의 문제를 모두가 주체로서 마주하고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그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처럼 욕망을 재배치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이나 만능키 같은 것은 없다.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청소년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청소년은 미래 세대 따위가 아니다.

③

'평평이'들의 이야기

'평평이'는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에 동의하면서, 다음의 약속에 동참해주신 분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 나이가 위아래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 나이가 어린 사람,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호칭과 표현을 쓰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우리 사회에서 나이 위계와 어린이·청소년 차별적인 언어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주변에서 이러한 언어·문화에 문케케기할 때 함께하겠습니다.

'평평이'에는 나이주의 등 각종 수직적 상하관계가 가득한 우리의 관계와 언어 문화를 더 '평평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평'등을 지지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2022년 5월 30일까지 302명의 '평평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존댓말 하는 어른은 처음 봐요.”

여름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존댓말 하는 어른은 처음 봐요.”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처음 만난 학생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들었던 말이다. 나는 존댓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내게 무조건 반말을 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라니,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이다. 이런 문제점을 알리며 어린이를 동등하게 대하자는 의미를 담은 지음의 ‘어린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포스터 문구를 본 친구가 내게 고민을 말해온 적이 있다. 캠페인의 내용에 진심으로 동의하지만, 일상에서 직접 실천하기가 망설여진다고 했다. 그러니까 어린이분들을 만났을 때 ‘○○ 님’ 또는 ‘○○ 씨’라는 호칭을 사용하기가 어색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반말을 해왔던 습관 탓도 있지만, 존댓말을 하면 오히려 어린이분이 불편해한다고 했다. 집과 학교에서는 ‘어른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이라고 배우는데 어른이 아닌 자신에게 존댓말을 하니,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하는 어른’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친구의 고민을 들으며, 어쩌면 자연스러운 망설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학교에서 학생 분들께 존댓말을 사용할 때 언제나 ‘존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건 능숙함을 기대하기보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청소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어린이·청소년을 존중해야함을 알고 있더라도, 그에 합당한 관계 맺기 방식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닳아가기 쉽기 때문이다. 어린이·청소년 분들이 비청소년에게 존댓말을 들으면 어색하고 낯설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청소년에게 ‘어른처럼’ 존중받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낯선 것을 받아들이고 익숙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불편감을 준다. 비청소년도 청소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같이 균열을 만들고 그 흔들림을 느끼는 것은 차별이라는 틈을 매우기 위한 과정이기에 함께 감내해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색하고 낯설다는 이유로 망설이기보다, 새로운 감각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반갑게 맞이해

보면 어떨까? '○○ 씨', '○○ 님'과 같은, 어쩌면 낯선 호칭들을 일상으로 가져와보자. 낯선 감각을 마주하고, 지금껏 불균형했던 관계를 들여다보자. 문제는 어색한 것이 아니라, 불균형한 관계가 용인되는 익숙함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말로만 학생인권 존중을 외치는 것을 넘어

이윤승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아마존의 밀림이 훼손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육식을 계속할 수는 없었고, 기후위기에 대해 말하면서 수입농산물을 가격이 저렴하다고 먹을 수는 없었다. 적당히 올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은 오히려 기만적이라고 생각했다. 교사가 되고 나서 학생을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하고자 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하고, 학생들이 교사인 나를 편한 존재로 느끼기를 바랐지만 실제로 나의 모습은 다른 교사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 조금씩 참여하게 되고 학생인권과 청소년인권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서 말로만 학생인권 존중을 외치는 것은 교사로서 그럴 듯해 보이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지위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해도 서로가 느끼는 학교 안의 각자의 위치는 다를 수밖에 없었기에 교사의 선의정도에 그칠 뿐이었다. 선의나 호혜적인 것이 아닌 관계가 되기엔 부족했고 다른 시도가 필요했다.

어느 해부터 학생들과 ‘같은 말’을 쓰고자 했다. ‘관계가 완전히 평등해지길 원하지만 학교의 운영 방식과 권력 구조 형편상 그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자위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의 의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처음엔 몇 명의 학생과 서로 반말을 하는 관계를 가져보았고 나중엔 나와 만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반말이 편하면 반말을 해도 되고 존댓말이 편하면 존댓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난 기본적으로 존댓말을 할 것이고 나에게 반말을 하는 학생하고는 서로 반말을 하고 싶다고. 존댓말을 할 때는 호칭도 이름 뒤에 ‘씨’ 또는 ‘님’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매년 나에게 반말을 해주는 학생도 있고 그들은 나를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곤 한다.

당연히 서로가 쓰는 말이 비슷하다고 모든 관계가 평등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나와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위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적어도 그 위계가 당연한 것이 아니며 계속해서 없애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학생들도 나에게 기꺼이 반말을 해주는 것 같다. 특히 나에게 반말을 하는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존댓

말을 하거나 후배와 함께 반말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나와 같은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렇기에 나의 행동의 변화가 나와 몇몇 학생의 관계에서 끝이 나지 않고 학교 안의 선배와 후배 그리고 학생들이 앞으로 만날 많은 어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어린 사람이 아랫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무엇이든 뭔가 시작해보았으면 좋겠다. 관계를 바꾸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많을 것이다. 그중 하나로써 상호존칭어를 쓰거나 서로 반말을 쓰는 것도 있으니 한번 해 보시길 추천한다.

학교 선후배 간 나이 차별적인 언어 문화

이중채
고등학생

우리는 모두 언젠가부터 학교 내에서 선배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다. 처음엔 누구나 얼떨떨하다. 그러나 모두들 자연스럽게 적응한다. 왜냐면 네가 쓰고 개네도 쓰는데, 나도 쓰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모두 듣는다. 후배에게서 존댓말을…. 누구나 처음엔 ‘뉘지’ 하지만 결국엔 익숙해지는 지금 우리 학교 속 언어 문화의 모습이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이게 굳이 불편해하거나 문제로 삼을 일이냐고. 결국엔 존중을 표하는 것 아니냐고. 물론 존중하는 것은 맞다. 그치만 중요한 건 그 존중이 후배에게서 선배에게로 ‘일방적’으로만 행해진다는 것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 이유는, 학교가 우리 사회의 수많은 모습을 거의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존댓말이란 언뜻 보기엔 그저 말 뒤에 몇 마디 더 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학교에서의 지위, 발언권, 그리고 서열…. 돌이켜보면 이는 우리 사회의 수직적, 차별적인 모습이 학교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약자에게 존댓말을 강요하고 강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여 그 집단이 움직이는 모습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겪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

나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방송부를 하고 있다. 많이들 모르지만 방송부라는 곳은 생각보다 서열 문화와 이에 따른 존댓말 강요가 심한 곳이다. 그곳에서 느꼈던 것은 저학년으로 갈수록 ‘말하는 것’이 거의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그저 고학년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따라야 했고 당시 나의 의견은 전혀 필요치 않았다.

나에게 유일하다시피 말할 것이 요구된 건 방송부 프로젝트에서 “네”, “아니요” 둘 중에 선택하여 답하란 것이었다. 저학년인 약자가 고학년인 강자에게 거의 복종하다시피 하는 것이 지금의 학교 문화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 학교 안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은지 보여준다.

우리는 선배에게 존댓말을 하도록 후배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

야 하는가? 학생회 임원들이 3학년에 집중되는 현상과 같은 고학년 중심의 권위주의식 문화를 바꾸는 데에 있어, 일방적 존댓말 문화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자의 발언권이 달라지고, 언어에서의 변화는 그 사회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한다. 약자에 대한 억압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가 될 때 우리 사회도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고 본다. 학교에서 선후배 간 일방적인 존댓말 문화가 사라지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하나 바꾸어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다.

갓난아기에게 “○○ 씨”가 어색할 게 뭐 있나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몇 달 전 자식을 낳은 친구와 대화하던 중 의례적인 안부 인사를 건넸다. “○○ 씨는 건강히 잘 계시고?” 친구는 웃으면서 대꾸했다. “잘 있지. 아니, 무슨 갓난아기한테 씨야, 씨는?” 어찌됐는가. 나는 ○○ 씨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고, 친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물을 때 존칭을 붙이는 것이 한국어에서의 예의라고 배워온 것을. 설령 그 사람의 나이가 만 0세라고 해도 예외를 둘 이유는 없었다.

고등학교에 다닐 적에 놀랐던 점 중 하나가 바로 학년에 따른 상하관계 문화가 너무나 확고했던 것이다. 1학년은 2, 3학년 ‘선배’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해야 했고, 학교에 먼저 입학한 사람들(사회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반말을 듣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나 역시 자연스레 그런 문화 속에서 생활했지만 그 모든 상황이 이상하고 곱씹럽다는 느낌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 있었다. 졸업을 하고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은, 어찌다가 나에게 존댓말을 쓰는 ‘후배’들과 연락할 일이 있을 때는 나도 존댓말을 쓰려고 한다. 비교적 친한 사람들 몇과는 서로 말을 놓았다. 진작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나에게는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존칭과 경어를 쓰는 것이 무슨 대단한 실천이 아니다. 단순하고 명쾌한 일이고, 언어의 기준을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 둔다면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나이를 따져 존댓말을 쓸지 반말을 쓸지 고민하는 게 훨씬 성가시고 억압적이다. 나는 존댓말-반말 등의 준비어가 ‘상하’가 아닌 ‘친소’에 따른 것이 되는 게, ‘수직’이 아닌 ‘수평’적 거리 또는 격식을 나타내는 요소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말이 나이를 포함해 사회적 권력을 좀 덜 담고, 대신에 개인적인 감정과 마음과 관계를 더 섬세하게 표현하는 도구가 되기를 꿈꾼다. 그러니 나는 상대방이 0세이든 5세이든 15세이든 25세이든 55세이든 상관없이 “○○ 님,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는 식으로 대화한다. 낯선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나의 성격에는 더 잘 맞는다. 평소에 하대를 듣는 데 익숙하던 어린이분이 어색해한다고? 무슨 상관인가, 낯선 사람에게 내가 존댓말을 쓰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원래 초면인 관계는 어색하고 어려운 것이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한국어의 존댓말과 반말, 존대-평대-하대의 언어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다. 외국인이나 말을 막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가 그렇다. 그와 같이 존댓말이 서툴거나 누구에게든 그냥 반말을 쓰는 상대를 만나면 가끔 나도 맞춰서 대화하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반말이 하대나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니까 큰 상관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과 친해지거나 한 것은 아님을, 다음에 만났을 때는(한국어에 조금 더 능숙해지면) 어떻게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이렇노라 늘어놓곤 있지만, 사실 나는 제법 소심하고 또 관대하여서 나에게 일방적인 하대를 하는 고령자들에게 문제제기를 잘 안 하는 편이다. 특히 운동사회 내에서 나를 존경받는 원로나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하대를 하는 일이 흔하다. 그때마다 “저희가 말을 놓았던가요?”라고 묻고픈 것을 꼭 참는다. 딱히 그들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참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거리에서 ‘빨갱이’라고 욕하며 시비를 거는 사람과 더 말을 섞지 않고픈 마음에 가깝다. 귀찮아서이고, 문제의식을 이해할 거라는, 말이 통할 거라는 기대가 별로 없어서이다.

그간 운동 사회 안의 나이주의 문제를 비판하고 없애 보자는 제안이 몇 번 나왔고 관련된 사건이나 이야기도 없지 않았지만 잘 통하지 않았던 적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 일상 언어 속 나이 차별 문제 개선 캠페인’에 큰 기대가 있다. 이렇게 다같이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면, 점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많아지면, 다른 문제들도 그러했듯 우리 사회 어디든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부록

- ① ‘어린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킵시다’ 포스터 소개
- ② 학교 내 나이 차별적 언어 문화 실태 조사 결과

부록 ①

'어린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킵시다' 포스터 소개

나이 어린 사람(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 **반말, 하대를 하지 마십시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이 어린 사람을 부를 때, **존칭(○○님, ○○씨 등)을 사용하십시오.**

친한 사이가 아닌 어린이·청소년에게 **'○○ 친구'라고 부르지 말고 정중하게 대화하십시오.** 어린이·청소년의 몸이나 물건 등에 **함부로 손대지 마시고 존중하십시오.**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거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대화, **평가 등을 나누지 마십시오.**

어린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킵시다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 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에서 진행 중인 <일상 언어 속 나이 차별 문제 개선 캠페인>포스터입니다.

▶ **나이 어린 사람(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 반말, 하대를 하지 마십시오.**

한국에서는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일방적으로 반말, 하대를 일삼아 드물지 않게 겪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청소년에 대해서는 반말을 쓰는 일은 더욱 많고, 언론에서, 정치인 등도 반말을 쓰는 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린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첫 시작은 바로 나이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쓰지 말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게 당연해지면 관계와 언어 문화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이 어린 사람을 부를 때, 존칭(○○ 님, ○○ 씨 등)을 사용하십시오.**

공식적인 자리나 장면에서도 어린이·청소년들을 포함해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존칭 없이 그냥 이름을 부르곤 합니다. 토론회 같은 데서 “○○야”라고 부르거나, 수업 중에 “김○○” 하고 이름만 부르는 것 같은 예들이지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공적인 행사나 자리에서는 친한 사이이든 아니든 직함이나 “씨”, “님” 같은 존칭을 붙이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어린이·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위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고 존칭을 쓰는 것이 어색하다고 여겨져서 그냥 이름이 불리는 일이 잦은데요.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존칭을 붙이게 된다면 좀 더 어린이·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 **친한 사이가 아닌 어린이·청소년에게 ‘○○ 친구’라고 부르지 말고 정중하게 대화하십시오.**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많이 쓰이는 호칭이 이름 뒤에 ‘친구’를 붙이거나 “친구는~” 같은 식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친한 사이이고 서로 친구라고 여겨서 그리 부르는 것은 이상할 게 없지요. 그러나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전혀 친하지 않아도 ‘친구’란 호칭을 쓰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호칭은 존대가 아닌 하대의 일종이고, 어린이·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을 갖는 데 좋지 않습니다. 공적이지 않은 분위기, 어린이·청소년을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친구’ 대신 존칭을 붙이거나 그 자리에 적절한 정중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 바른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쪽의 ‘○○ 친구’ 글 참조)

▶ **어린이·청소년의 몸이나 물건 등에 함부로 손대지 마시고 존중하십시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무례는 언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신체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도 자주 나타납니다. 어린이·청소년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고, 사적인 물건을 압수하거나 보는 등의 일은 인권 침해이기도 하며, 다른 존중해야 할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몸과 공간, 물건을 침범하지 않고 조심스레 대하는 것은 보편적인 예의의 기본이고, 어린이·청소년에게도 지켜져야 합니다.

▶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거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대화, 평가 등을 나누지 마십시오.**

어린이·청소년이 비청소년(가족 등)과 동행할 때, 어린이·청소년을 무시하고 비청소년만 바라보며 대화하는 일 또는 비청소년에게만 주문을 받는 일 등이 종종 일어납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그 사람에 대한 화제, 평가 등을 비청소년들끼리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어린이·청소년이 아니라면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우리 사회가 어린이·청소년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들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 말에도 다른 사람의 말과 마찬가지로 귀 기울이고, 어린이·청소년이 함께 있을 때는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고 대화하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부록 ②
학교 내 나이 차별적 언어 문화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는 캠페인 활동 중 하나로, 2021년 학생의 눈을 맞이하여 학교에서의 나이주의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 설문조사 개요

- ◆ 조사기간: 2021년 10월 15일~10월 29일(15일간)
- ◆ 설문대상: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 ◆ 설문내용: 교직원-학생간, 학생-학생간 나이주의 문화에 관한 질문 10개, 설문 참여자 특성에 관한 질문 3개, 설문사례 이벤트 참여 질문 1개 등 총 14개

2. 설문 참여자의 통계학적 구성

- ◆ 전체 설문 응답자수: 697명

학년	응답자 수 (비율)
중학교 1학년	116명 (16.64 %)
중학교 2학년	111명 (15.93 %)
중학교 3학년	109명 (15.64 %)
고등학교 1학년	120명 (17.22 %)
고등학교 2학년	119명 (17.07 %)
고등학교 3학년	122명 (17.50 %)
합계	697명 (100.00 %)

성별	응답자 수 (비율)
여성	404명 (57.96 %)
남성	278명 (39.89 %)
기타	15명 (2.15 %)
합계	697명 (100.00 %)

지역	응답자 수 (비율)	지역	응답자 수 (비율)
강원	10명 (1.43 %)	세종	8명 (1.15 %)
광주	11명 (1.58 %)	울산	11명 (1.58 %)
경기	95명 (13.63 %)	인천	31명 (4.45 %)
경남	43명 (6.17 %)	전남	12명 (1.72 %)
경북	16명 (2.30 %)	전북	30명 (4.30 %)
대구	21명 (3.01 %)	제주	50명 (7.17 %)
대전	19명 (2.73 %)	충남	205명 (29.41 %)
부산	20명 (2.87 %)	충북	24명 (3.44 %)
서울	91명 (13.06 %)	합계	697명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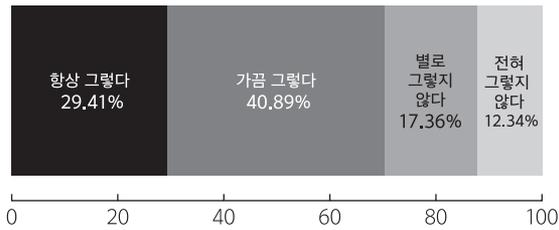
3. 설문조사 결과

● 교직원과 학생 사이의 나이주의 언어 문화

교직원과 학생 사이의 나이주의 언어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 중/공식 행사 중/개인적 대화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하였습니다.

첫째, 평소 수업 중 교직원으로부터 하대(반말)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0.3%의 참여자가 ‘항상 그렇다’ 또는 ‘가끔 그렇다’로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 29.7%의 두 배가 넘는 비율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교직원이 학생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흔한 일이고 오히려 존대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더 드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평소 수업 중
교직원으로부터 하대(반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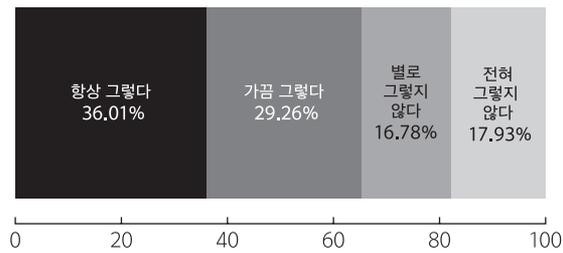
학교에서 평소 수업 중 교직원으로부터 하대(반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응답자 수 (비율)	
항상 그렇다	205명 (29.41 %)	490명 (70.3 %)
가끔 그렇다	285명 (40.89 %)	
별로 그렇지 않다	121명 (17.36 %)	207명 (29.7 %)
전혀 그렇지 않다	86명 (12.34 %)	

둘째, 공개수업, 교내 방송, 공식 행사 중 교직원으로부터 하대(반말)를 들은 적이 있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의 33.85%가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로 응답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한 비율이 66.13%의 절반 수준입니다. 평소 수업 때는 하대(반말)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공개수업 등의 행사에서는 존대어 사용이 더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교직원과 학생 간의 관계는 공식적인 관계이며, 공식적인 상황에서 존대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정당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개수업, 교내 방송, 공식 행사 중 교직원으로부터 하대(반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응답자 수 (비율)	
항상 그렇다	78명 (11.9 %)	236명 (33.85 %)
가끔 그렇다	158명 (22.66 %)	
별로 그렇지 않다	200명 (28.69 %)	461명 (66.13 %)
전혀 그렇지 않다	261명 (37.44 %)	

셋째, 개인적 대화 즉 교직원과 학생이 일대일로 대화하거나 소수의 학생들과 교직원이 대화할 때 하대(반말)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5.27%의 참여자가 ‘항상 그렇다’ 또는 ‘가끔 그렇다’로 응답하였습니다. 다른 질문들과 비교했을 때 개인적 대화에서는 ‘항상 그렇다’는 응답이 3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대일 또는 소수의 학생들이 교직원과 대화할 때는 작은 권력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에서 더 섬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 대화에서도 교직원-학생 간의 언어 문화가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수가 적고 그것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것이라도 교직원과 학생 사이의 대화는 공식적이고 업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식적 행사보다 하대(반말)의 사용이 훨씬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교직원-학생 간의 대화에 있어 상황보다 업무상과 관계임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교직원-학생 간의 대화 문화가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직원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일반적인 하대(반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교직원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일반적인 하대(반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응답자 수 (비율)	
	항상 그렇다	251명 (36.01 %)
가끔 그렇다	205명 (29.26 %)	
별로 그렇지 않다	117명 (16.78 %)	242명 (34.71 %)
전혀 그렇지 않다	125명 (17.93 %)	

성별로 나누어 응답을 살펴보면, 여성 학생과 기타 성별 학생들이 남성 학생에 비해 평소 수업과 개인적 대화에서 일방적인 하대(반말)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개인적 대화의 응답을 살펴보면, 항상 일방적인 하대(반말)를 경험한다는 응답이 남성 학생에서는 24.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여성 학생에게는 43.56% 그리고 기타 성별 학생에게는 53.33%로 나타났습니다. ‘가끔 그렇다’는 응답 역시 남성 학생(26.26%)보다 여성 학생(30.94%)과 기타 성별 학생(40.00%)이 더 높았습니다.

학교에서 평소 수업 중 교직원으로부터 하대(반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성별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여성	137명 (33.91 %)	174명 (43.07 %)	64명 (15.84 %)	29명 (7.18 %)
남성	61명 (21.94 %)	104명 (37.41 %)	57명 (20.50 %)	56명 (20.14 %)
기타	7명 (46.67 %)	7명 (46.67 %)	0명 (0.00 %)	1명 (6.67 %)

학교에서 공개수업, 교내 방송, 공식 행사 중 교직원으로부터 하대(반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성별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여성	42명 (10.40 %)	103명 (30.94 %)	127명 (31.44 %)	132명 (32.67 %)
남성	33명 (11.87 %)	48명 (17.27 %)	71명 (25.54 %)	126명 (45.32 %)
기타	3명 (20.00 %)	7명 (46.67 %)	2명 (13.33 %)	3명 (20.00 %)

학교에서 교직원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일방적인 하대(반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성별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여성	176명 (43.56 %)	125명 (30.94 %)	55명 (13.61 %)	48명 (11.88 %)
남성	67명 (24.10 %)	73명 (26.26 %)	62명 (22.30 %)	76명 (27.34 %)
기타	8명 (53.33 %)	6명 (40.00 %)	0명 (0.00 %)	1명 (6.67 %)

학교급별로 나누어 응답을 살펴보면,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하대(반말)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행사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응답 수준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 역시 개인적 대화에서 가장 컸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77.84%(‘항상 그렇다’와 ‘가끔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교직원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하대(반말)를 들었다고 응답하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97%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나이가 더 많으면 더 대우를 받는 나이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추측해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하대(반말) 응답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하대(반말)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중·고등학교에서 나이에 따라 나이주의 문화가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교직원-학생 간의 위계가 더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사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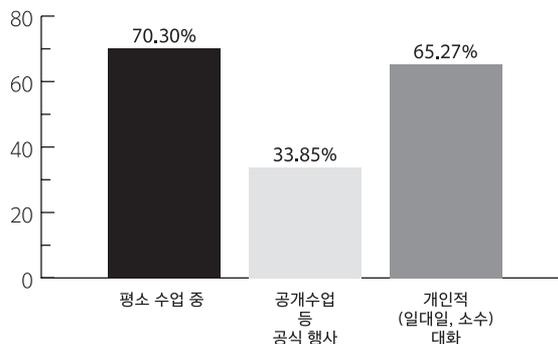
학교에서 평소 수업 중 교직원으로부터 하대(반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학교급별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학교	75명 (22.32 %)	134명 (39.88 %)	71명 (21.13 %)	56명 (16.67 %)
고등학교	130명 (36.01 %)	151명 (41.83 %)	50명 (13.85 %)	30명 (8.31 %)

학교에서 공개수업, 교내 방송, 공식 행사 중 교직원으로부터 하대(반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학교급별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학교	37명 (11.01 %)	66명 (19.64 %)	90명 (26.79 %)	143명 (42.56 %)
고등학교	41명 (11.36 %)	92명 (25.48 %)	110명 (30.47 %)	118명 (32.69 %)

학교에서 교직원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일방적인 하대(반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학교급별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학교	86명 (25.60 %)	88명 (26.19 %)	73명 (21.73 %)	89명 (26.49 %)
고등학교	165명 (45.71 %)	116명 (32.13 %)	44명 (12.19 %)	36명 (9.97 %)

교직원-학생 간의 하대(반말) 경험에 대해 질문한 세 가지 내용을 비교해보면 평소 수업과 개인적 대화에서의 하대(반말)이 각각 70.30%, 65.27%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공개수업 등 공식 행사에서는 33.8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교직원-학생 간의 대화에서 존대 사용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공식적일 때만 사용하는 이중적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대(반말)를 듣는 상황 별 '그렇다'고 답한 응답



하대(반말)를 듣는 상황	‘그렇다’ 응답
평소 수업 중	490명 (70.30 %)
공개수업 등 공식 행사	236명 (33.85 %)
개인적(일대일, 소수) 대화	456명 (65.27 %)

또한 수업이 학교에서 공식적인 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수업에서 개인적 대화와 비슷한 수준의 하대(반말)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 문화 전체에서 나이주의 문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 교직원과 학생 사이의 일방적 예절 강요

호칭이나 하대(반말) 등의 언어문화 외에 다른 나이주의 문화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직원으로부터 먼저 인사하기를 요구받는 등 일방적인 예절을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참여자들에게 여쭙보았습니다. 예절은 상호간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만 나이를 바탕으로 하는 위계적인 문화에서는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만 강요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예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예절의 강요가 학교에서도 있는지, 학생들이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직원으로부터 먼저 인사하기를 요구받는 등 일방적인 예절을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응답자 수 (비율)	
항상 그렇다	128명 (18.36 %)	324명 (46.48 %)
가끔 그렇다	196명 (28.12 %)	
별로 그렇지 않다	167명 (23.95 %)	373명 (53.50 %)
전혀 그렇지 않다	206명 (29.55 %)	

이 질문에 대해 설문 참여자들의 46.48%(‘항상 그렇다’와 ‘가끔 그렇다’의 합)가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9.55%에 달해 언어를 통한 나이주의 문화보다는 일방적인 예절 강요가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직원-학생 간의 나이주의 문화는 수업과 상담 등 대화와 언어적 소통을 통해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교직원과 학생 사이의 비하, 무시, 모욕

학교에서 교직원으로부터 듣거나, 다른 학생이 듣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 멸칭(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하하며 부르는 말)을 모두 고르는 질문에서 설문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전체 응답자수 697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야”(71.16%), “임마”(51.94%), “새끼”(43.33%), “자식”(39.17%), “녀석”(33.86%)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씨발년”, “개새끼”, “병신” 등 욕설과 비속어로 불러본 경험도 50여 건 이상 응답이 있어 설문 참여자 11명 중 한 명꼴로 언어적 폭력을 교직원으로부터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호칭을 들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직원-학생간 언어문화가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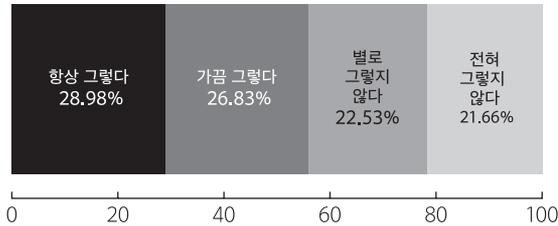
호칭	응답자 수 (비율)	호칭	응답자 수 (비율)
야	496명 (71.16 %)	임마	362명 (51.94 %)
새끼	302명 (43.33 %)	이것/저것/그것들	201명 (28.84 %)
자식	273명 (39.17 %)	녀석	236명 (33.86 %)
어이(어여)	182명 (26.11 %)	기타	121명 (17.36 %)

또한 교직원으로부터 들은 학생을 무시하는 말, 모욕적인 말에 관해 물은 문항에서는, “불가촉천민”, “너희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니?”, “(좋아하는 연예인 자살했을 때) 그깟 판따라 뒤졌다고 왜 너네가 지랄이야” 등 모욕적·폭력적인 말, “3점짜리도 못 푸는 너희들, 멍청한 새끼들”, “너의 생각은 (종이를 찢으시는 흥내를 내면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돼”, “이제부터 대답 못하는 자식들은 강통대加里” “너 같은 애들이 사회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등 무시·비하하는 말, “10년 전이었으면 너 나한테 맞았다”, “내가 네 세특(학교생활기록부 세부특기사항) 써줘, 근데 너는 나한테 이래도 돼?”, “한번만 더 말대꾸하면 죽여 버린다” 등 위협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 “여자는 조신해야지”, “남자는 울면 안 돼”, “동성애는 정신병이야” 등 차별적이고 편견을 담은 말, “(입술이 부은 여학생을 보고) 안젤리나 졸리 같이 섹시하다”, “술집 여자같다” 등의 외모 평가 또는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말 등이 다수 제보되었습니다. “니까짓 게 감히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으면 신호음이 2번 가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다”, “학생이 어디서 선생님한테 말대꾸를 해”와 같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는 ‘갑질’이라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학생 간 일방적 하대(반말) 경험

학생 사이의 나이주의 언어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에서 다른 학생으로부터 나이가 더 많거나 학년이 더 높다는 이유로 한쪽에서는 하대(반말)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존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설문 참가자 55.81%('항상 그렇다'와 '가끔 그렇다'의 합)가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교직원-학생간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도 나이로 인한 위계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일상적으로, 언어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1.66%에 달해 교직원-학생간의 위계보다는 학생 간의 나이위계가 상대적으로 덜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학생으로부터 나이가 더 많거나 학년이 더 높다는 이유로 한쪽에서는 하대(반말)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존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다른 학생으로부터 나이가 더 많거나 학년이 더 높다는 이유로 한쪽에서는 하대(반말)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존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응답자 수 (비율)	
	항상 그렇다	202명 (28.98 %)
가끔 그렇다	187명 (26.83 %)	
별로 그렇지 않다	157명 (22.53 %)	308명 (44.19 %)
전혀 그렇지 않다	151명 (21.66 %)	

학생들 사이에서 나이가 더 많거나 학년이 더 높다는 이유로 인사나 대화방법 등에서 차별적인 경험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서술식으로 응답하도록 한 질문에서는 221명이 응답하였습니다. 많은 수가 낮은 학년이 존대하고 높은 학년이 반말을 한다고 응답했고,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과 급식순서가 학년에 따라 높은 학년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다수 나타났습니다. 일방적인 예절 강요 및 강압 행사 등도 나타났는데 “90도 인사”를 강요하고 인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이 이루어지거나 “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갈아입으라고 함”, “선배님들 앞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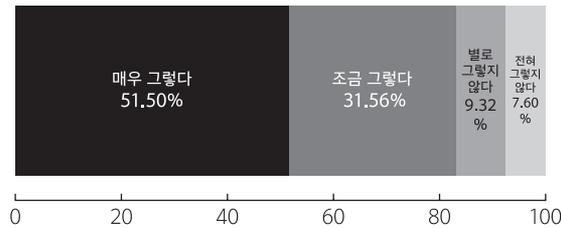
선 폰도 못 만지게 하고 선배님들 앉아가시면 의자 있어도 서 있어야 하고” 등 학년과 나이에 따라 권력관계가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제보되었습니다. 학년 간의 나이 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동아리나 학생회 등 공동체 내에서 나이에 따른 차별과 위계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응답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나이주의 문화에 대한 인식**

중·고등학생들의 나이주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조사하였습니다.

첫째, ‘한국 사회는 나이에 따른 수직적 문화 그리고 어린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문장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설문 참여자들에게 여쭙었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의 51.5%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한국 사회의 수직적 문화, 나이로 인한 차별에 대한 공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금 그렇다’는 응답을 포함하면 83.06%의 설문 참여자가 어린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나이에 따른 수직적 문화 그리고 어린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한국 사회는 나이에 따른 수직적 문화 그리고 어린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응답자 수 (비율)	
	매우 그렇다	359명 (51.50 %)
조금 그렇다	220명 (31.56 %)	
별로 그렇지 않다	65명 (9.32 %)	118명 (16.92 %)
전혀 그렇지 않다	53명 (7.60 %)	

둘째, ‘학교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존대하고 친한 관계에서만 말을 놓는 문화가 확대된다면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가 될 것이다’는 문장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설문 참여자들에게 여쭙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79.05%의 참여자가 ‘매우 그렇다’ 또는 ‘조금 그렇다’고 응답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평등한 언어 문화가 학교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을 많은 중·고등학생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는 나이(학년)을 중심으로 급식 순서, 규칙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마스크 착용에 대한 통제도 저학년에게 더 강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응답도 나타났습니다. 나이(학년)이 학교 생활 전체에 있어서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4.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교직원들로부터 일방적인 예절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직원 일부는 비하나 무시 또는 욕설을 학생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생들 간의 문화에서도 나이(학년)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나이로 인한 차별이 심하다고 중·고등학생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은 나이로 인한 차별을 긍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평등한 언어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중·고등학생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 사회 전반이 나이차별, 특히 언어 문화에서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학교에서 교직원-학생 간의 소통 문화 그리고 학생-학생간의 소통 문화가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소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단체입니다. “지음”이란 이름에는, 글을 짓고, 집을 짓고, 밥을 짓고, 농사를 짓듯, 청소년인권운동의 말과 공간과 기반을 창조하고 만들어 가는 단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청소년인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의 곁을 지키며, 소리와 마음을 알아주는 지음(知音)이 되자는 뜻도 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청소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인권운동을 펼쳐 나갑니다. 청소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나서’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민이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좋은 어른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세상, 어린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세상, 청소년 스스로가 힘을 갖고 차별과 폭력에 맞설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를 위해 반인권적·비민주적인 학교를 바꿔 나가는 학생인권 운동, 청소년이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 운동, 경쟁적 교육에 반대하고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팀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팀은 2020년 11월부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 하고 있는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 일상 언어 속 나이 차별 문제 개선 캠페인’을 담당하여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차별적인 언어 문화를 지적하는 글과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언론보도 문화 조성을 위한 토론회’(2021년 9월)를 열었으며, ‘학교 내 나이 차별적 언어 문화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2021년 11월)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소책자 기획과 제작 등에 참여한 팀원 : 공현, 민서연, 백호영, 이은선, 진냥

협력한 활동가들

소책자 및 크라우드펀딩 선물들의 디자인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둠코 활동가가, 리유저블컵 에코백의 일러스트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이은선 활동가가 맡았으며, 그 밖의 지음의 여러 활동가들이 프로젝트 전 과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음과 함께하기

'채움활동가'로 참여하기

채움활동가는 지음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활동에 참여하는 팀/사업 별 참여 활동가입니다. 함께하실 분은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에서 '채움활동가 하기'를 선택해주세요!

홈페이지 yhrjieum.kr

이메일 yhr.jieum@gmail.com

인스타그램 [instagram.com/yhr_jieum](https://www.instagram.com/yhr_jieum)

페이스북 [facebook.com/yhrjieum](https://www.facebook.com/yhrjieum)

트위터 twitter.com/yhr_jieum

펀딩 후원자 명단

2022년 4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텀블벅을 통해 총 174분이 펀딩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 apdl****, B, b유나, Bonaparte Kim, bri, carpediem, da****, de****, Doomko Kim, Foract, ginger_mom, Hannist, heum, hmm, hYehYUnH황혜현, imagin****, Jin, lesley, medalz****, Minsook Lee, Na Young, Narae Ha, o****, RainySun, Ranghee Kim, saew****, Sun-chul Kim, swl, takethesky, wgml, Wisefool, Yeojoo Lim, YeonHyeWon, Yoon Seung Yi, Zeno Ki, 가람, 감자, 개굴경내, 계영_판이, 공현, 곽상탄, 권선희연우연준, 권은숙, 그리, 길수진, 김기언, 김녕미로공원, 김라현, 김법준, 김성애, 김소영, 김소혜, 김시연, 김영미, 김예은, 김유미, 김이민경, 김진, 김태현, 곰지락, 껌, 나르맹, 나영청, 나준별샘, 남청아, 다빈, 달려라하니, 데이지, 디요, 라벨, 레나, 레빗, 레이먼, 림보, 마지, 몰라, 몽글, 민트, 박민아, 박성은, 박연지, 박재현, 박해영, 박현석, 박혜린, 방세라, 배추도사조성실, 보림, 비비새시, 삐죽이, 석삼, 석현, 세란, 세잎녹차, 소리없이, 수경, 슝, 수원에너지협동조합조영미, 수케비, 슝눈, 승기맘박미혜, 시시, 시안 에이린, 신동훈, 신재윤, 싱기후니, 악센트, 알긴, 앞, 양민주, 양재규, 어리아어, 어쓰, 오동석, 오이, 오창록, 오현정, 온이랑, 우연, 유나, 유원선, 윤상혁, 윤소윤, 윤윤윤, 이경은, 이기자, 이김춘택, 이덕현, 이상진, 이수미, 이심지, 이우혁, 이청주, 이주희, 이채원, 이현애, 인어공주, 임예은, 장하은, 정민, 정상규, 정세희, 정소경, 정현정, 정효자, 케탈다, 케호, 조한진희, 지혜한, 진냥, 진영짱, 진주짱, 초뭍, 최보근, 최보라, 최순홍, 최은숙, 최은정, 최형규, 최혜정, 카곤, 플러스, 피아, 한날, 한지인, 한희, 허미옥, 허선혜, 현승민, 헤민, 호연, 홍지호, 희음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소책자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2022

2022년 6월 13일 펴냄

기획·제작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글쓴이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팀

디자인

뚝코

홈페이지 yhrjieum.kr

이메일 yhr.jieum@gmail.com







